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25호

Thursday, January 30, 2025 A

워싱턴 10만명 사퇴 예상

2월6일까지 명예퇴직 최후통첩
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10% 감축 빈말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월6일까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9월말까지의 고용과 원격근무를 보장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공무원 10% 감축 계획은 단순한 업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방인사처(OPM)는 28일(화) 오후 20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이메일을 통해 2월6일 사퇴 의사 시한과 향후 퇴직 보상 및 계획을 발표하며 명예퇴직에 따른 잇점을 설명했다. OPM은 2월6일 시한의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사퇴의사를 밝힐 경우 향후 업무량과 관계없이 9월30일까지 기존 급여와 베니핏을 제공하고 출퇴근 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명예퇴직 대상에는 군인, 연방 우정국(USPS) 직원, 국토안보부 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인사처(OPM)이 연방공무원 감축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민법 집행기관 요원,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OPM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조치 외에도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통해 연방공무원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첫 단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를 전면 철회하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인사 정책은 최고 수준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 정부 하에서는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작은 정부로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공무원은 자고로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민들로 채워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강화된 업무 지침과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월6일 시한까지 10만명 이상의 워싱턴지역 연방공무원이 사퇴 프로그램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19세 미만 성전환 지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 등의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와 군인 건강보험 프로그램 트라이케어 등을 통한 성전환 수술 비용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있다.

18세는 연방법상 선거가 가능한 성인이지만 이 행정명령에는 미성년자로 규정됐다. 고교 졸업 후 군입대를 하는 18세 성인이 트라이케어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성전환 관련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곧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 치료 커버리지 중에는 성 정체성이 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를 경우 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과 호르몬 요법 등의 약물치료 등도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청소년

성전환 치료 지원을 금지하는 각종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 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수술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자연적인 성을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모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원하는 커버리지가 ‘매우 야만적인 의료 기술’”이라고 비난했다. 개신교 단체 등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자유연맹(ACLU) 등 진보 진영에서는 위헌적인 행정명령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CLU는 성소수자를 위해 대규모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 1호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 이민자가 절도 등 비폭력 범죄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가석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레이컨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다.

조지아대학 간호학과 학생 레이컨 라일리가 캠퍼스 내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하자, 범죄죄 전력 불체자도 구금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불체자를 구금하고 추방함으로써 또다른 살인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의하면 불법체류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또는 강도로 기소되지만 해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의무적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법 집행기관이 주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근거로 연방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37표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반이민책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은 “공화당이 값싼 표를 얻으려 현실과 무관하게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윤미 기자

연방정부 건물 절반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건물을 절반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조달청(GSA) 공공건물서비스국의 마이클 피터스 국장은 “수년 내에 연방정부 소유건물 포트폴리오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스 국장은 “이제 막 정책 입안 단계이긴 하지만 초기 검토 결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면서 “최대한 빨리 수년 내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줄어나갈 연방정부 건물의 대부분은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GSA의 워싱턴DC 본부 건물(1800 F St. NW)도 매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GSA는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자체 건물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재검토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건물개혁위원회(PBRB)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워싱턴DC의 연방정부 건물 내 수용인원 비율은 예상 수용 인원의 12%에 불과했다. 현재 연방정부 소유 건물의 평균 연식은 51년이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버지니아 맥클린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모두 꾸며져있는자리 5000 SF	제과점 자리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제과점 자리 3000 SF	Beer and Wine Shop VA 알링턴,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2400 SF, 렌트 \$7200, 조건부임대계약 MD 몽고메리카운티,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자동차 메카닉샵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 메카닉샵 운영할수분 판매기 10만불, 월5만매출, 차고3개	리 커 워싱턴 디씨,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컴퓨터 수리점 버지니아 애쉬번 데이타센터주변, 10만불 연매출 20만, 장비와 인벤토리 포함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트맥밀, 인기 많은 집, 25만불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창고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창고 임대 3900 SF, 로딩닥 있음	스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www.dwellwashington.com

“음주운전하지 말고 구금 피해라”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

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한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

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영지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MD 장의사에서 부패한 시신 발견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의 한 장의사가 시신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릴랜드 정부기관인 장의사 및 장례식장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찰스 카운티의 헤이븐 바운드 장례 서비스 회사가 시신을 적정 온도에 보관하지 않아 부패하게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시신 보관 박스와 가방도 찢어진 상태였다. 이렇게 잘못 보관한 시신

이 18구에 달했다. 이곳에 시신을 맡긴 유족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작고한 은퇴 경찰관의 아들은 “이 장의사가 우리에게 화장한 재를 건네줬으나 그 과정이 고인의 존엄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이 장의사는 시정조치를 받고 2주 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적발됐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다양성 부서 폐지

워싱턴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인종 다양성 등을 지원하는 DEI 부서를 폐지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연방국세청(IRS)의 501(c)(3) 조항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연방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특별법에 의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연방 정부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다. 스미소니언 예산의 53%는 연방정부 일반 회계 지원예산에서 나온다.

VA 자동차재산세 폐지법안 무산

버지니아 상원 예산재원소위원회가 글렌 영킨 주지사의 중점법안인 자동차 재산세 폐지 법안을 무산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위원회는

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법안과 소득세 표준공제 인상법안, 근로소득세 공제(EITC) 연장 법안에 대해 서도 심의를 중단하고 보류했다.

김옥채 기자

사랑과 진리의 교회 영어성경 아카데미

스마트폰 강좌도 열려

버지니아 폴스처처에 위치한 사랑과 진리의 교회(담임목사 서규원·사진, 3527 Gallows Rd, Falls Church, VA 22042)가 영어성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서규원 담임목사는 “영어성경을 통해 성경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영어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카데미는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의 영어 성경을 통해 문법 강의가 이뤄진다.

오는 2월25일 시작하는 영어성경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사랑과 진리의 교회는 2월4일 아이폰과 2월11일 안드로이드폰의 폭넓은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강좌도 개설했다.

이 강좌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본 원리와 통역, 이메일, 카톡, 사진, 각종 앱, AI 챗 등을 알려준다.

강사: 서규원 목사
전화: 202-714-1100 김윤미 기자

CUCKOO 특별 프로모션

CUCKOO가 프리미엄 밥솥 제품만을 모아 설날 특별 할인행사를 2월9일까지 실시한다.

CUCKOO 측은 밥솥을 업그레이드 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쌀밥은 물론 잡곡밥 까지 맛있게 조리하며, 시간까지 단축한 고가 밥솥(HP, IH, 트윈프레서 밥솥)이 프로모션에 포함됐다. 내출류와 대용량 온수 포트도 함께 할인 판매하고 있다.

CUCKOO는 주방 및 가전제품을 전문 유명 한국 브랜드다. 한국에서 1위 밥솥 브랜드로 인정받은 CUCKOO는 혁신적인 기술, 세련된 디자인, 프리미엄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CUCKOO는 북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CUCKOO Electronics America를 설립하고 주요 미국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혔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아메리카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틱톡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s://cuckooamerica.com>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cuckoo_america
▷ TikTok <https://www.tiktok.com/@cuckooamerica>

워싱턴 날씨 (°F)

	31일(금) 56~39		3일(월) 62~41	
	1일(토) 46~27		4일(화) 48~31	
1월 30일(목) 50~42	2일(일) 43~36		5일(수) 47~3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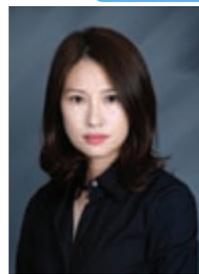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DEI 폐지, 워싱턴 지역 대학 큰 피해

10억달러 교육용역예산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적 다양성 등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부서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워싱턴 지역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 지역에 밀집한 연방정부 부처의 DEI 관련 부서 직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워싱턴 지역 대학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역 대학들은 또한 기존 연방정부 공무원의 DEI 연수 교육을 전담해 왔었다.

미국 교육위원회는 “워싱턴지역 대학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면서 “이 지역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각종 DEI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방교육부의 DEI 관련 교육용역사업 예산 중 당장 워싱턴 지역 대학에 할당된 10억달러 이상의 집행이 중단됐다. 트리니티 워싱턴 대학 측은 “대학 변호사들과 연방공무원 DEI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DEI 교육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합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엘렌 그랜베르그 조지워싱턴대학 총장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우리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로버트 그로브 조지타운대학 총장 직무대리는 “교무처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 등과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면서 “DEI 교육을 맡았던 교수진과 교직원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 메릴랜드의 모건 스테이트 대학 등도 각 연방정부 부서의 DEI 위탁교육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학생단체들은 “우리 학생들이 DEI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메리칸 대학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졸업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내부 대책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학생 추방될까 걱정”

페어팩스 카운티 원칙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예외 지역으로 고시했던 교회와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립학교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데이빗 왈로드 페어팩스 카운티교사연맹(FCFT) 의장은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친구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학기 중 학생 추방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FCFT는 최근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결석한 학생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MPI)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17세 공립학교 재학생 중 서류 미비 학생은 73만3천명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도 각각 1만5천명, 1만3천명이 서류 미비 학생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대부분



본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나 서류미비 상태로 남겨진 경우다. FCFT는 교사들로부터 이민국 요원이 교실에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FCFT는 일단 ICE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교육청 법무관실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건물 외부에 학칙을 게시하고 있다.

학칙에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으며, 가족과 학생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우리는 이같은 학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잘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을 장려한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 어퍼머티브액션 완전 폐지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들이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액션위헌 결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2023년 어퍼머티브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대학

은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입학 전형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주요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에세이에서 ‘정체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입학 사정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퍼머티브액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아 펠드먼 하버드 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에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정부 기관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인권 및 사회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영향으로 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사내 DEI 정책의 폐기를 발표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H마트, ‘강릉 엄지네 꼬막’ 팝업 스토어 오픈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강릉 엄지네 꼬막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버지니아 버크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페어팩스점에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점에서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의 대표 포장마차 메뉴 중 하나인 ‘꼬막무침’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한국에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강릉 엄지네 꼬막’은 특유의 맛있는 양념과 쫄깃한 식감으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H마트 일부 매장에서는 조기 품절을 기록할 정도로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본 행사에 대한 문의는 버지니아 버크점(703-621-2345), 페어팩스점(703-896-4640)과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점(443-574-3456)으로 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케네디센터 무료공연 5일 4인조 밴드 ‘공명’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밀레니엄 스테이지(Millennium Stage at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다음달 5일(수) 오후 6시, 음력 설맞이 무료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독창적인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월드뮤직그룹 공명(GongMyung)이 주도한다.

공명은 1997년에 결성된 4인조 창작음악 밴드로, 대금, 소금 등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의 조화로운 창작 및 재구

성을 통해 한국음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선보이고 있는 단체다.

공연단은 직접 제작한 대나무 악기 뿐만 아니라 관악기, 타악기, 자연에서 발굴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독특한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형시키며, 전통음악의 색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유쾌한 퍼포먼스로 호평을 받아 왔다.

공명은 ‘2018년 서울문화투데이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미국 투어에는 강선일, 박승원, 송경근, 임용주 포함 총 4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무료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케네디 센터 해당 웹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탁-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VISA/MASTER CARD 집단 소송 안내말씀

2004-2019 년도 사이에 가게 / 사업체 에서 VISA/MASTER CARD 신용카드로 소비자 결제 받으신적이 있으시면, **“과도한 수수료”** 집단소송에 가입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3일 까지 접수중)

Kimm Law Firm, NY, NJ

▶ 문자: 917-670-2060

▶ 이메일: msk@kimmlaw.com



선호 업종 갈림길...부모-자녀 세대 단절 뚜렷

한인 경제 새 성장동력 찾아라

세탁소·리커 등 ‘아메리칸 드림’ 자영업 한인 은퇴 증가 1세대 언어·차별 장벽 사라져 창업·고소득 전문직 진출 차세대 가업 참여시키려면 경영 체계화·현대화 필요해

올해로 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을 맞았다. 각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활발한 가운데 세대간 연결 고리가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업계에서도 1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단절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애틀랜타 지사가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한인 경제 새 성장 동력을 찾아라’ 시리즈를 남가주 한인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1990년 12월 1일부터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의 도라빌 보험대리점을 운영해온 S씨는 33년을 뒤로 하고 올해 은퇴했다. “퇴직 기념 마지막 고객 감사 인사 광고를 제작하러 갔더니 언제, 어떻게 은퇴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 신문에 창업 안내보다는 은퇴 광고가 많아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1965년 이민법 개정 후 태평양을 건넌 한인 1세대의 이민 비즈니스들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보험·용자, 세탁소, 네일샵, 델리그로서리, 리커, 뷰티스토어 등 이민자들의 중산층 진입을 도왔던 아메리칸 드림 업종 중 손바뀜을 기다리는 매물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2세대가 줄면

서 한인사회 비즈니스 지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0년 애틀랜타 중앙일보 업소록을 살펴보면 14년간 가장 부침을 심하게 겪은 업종은 용자다. 개인사업자 146곳이 현재 71곳으로 절반이 줄었다. 가방 전문 수입 도매업체 6곳도 현재 한 곳을 남기고 사라졌다. 한식당이 44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상록한인양로원(노스캐롤라이나), 한인양로원(조지아) 등 동남부 4곳에 불과했던 양로원은 1세대 고령화에 발맞춰 현재 23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민 1세대 대부분이 자영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부정적, 긍정적 요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 세대별 이민 자영업의 차이를 연구해온 김윤하 마드리드



조지아주에서 한인 이민 1세대의 한인타운으로 자리 잡았던 도라빌 상가

카를로스3세대대학(UC3M) 교수(경영학)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들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풀 팩터(pull factor)와 푸시 팩터(push factor)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가 언어장벽, 고용시장 외국인 차별, 제도적 자격 미달, 비자 제한, 문화 차이 등의 ‘격벽 요인’으로 취업이 어려워 생계유지의 차선책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풀 팩터라면, 푸시 팩터는 이민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속에서 더 큰 성공 기회를 잡으려는 창업자 자세로,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세대의 경우 불평등의 풀 팩터가 줄어들면서 선호하는 업종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동화될수록 불리한 풀팩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2세대는 푸시 팩터의 창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 잠재력이 더 큰 업종에서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모세대보다 고소득 직종 취업이 용이한 자녀세대는 자영업 진입 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연봉)이 높기 때문에, 창업 시 법안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이 가능한 업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인혁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교수(경제학)는 “1세대 이민자는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만 주로 상대하거나 위험부담이 적

은 이민, 상속, 개인 상해 전문 분야만 맡는 경우가 많지만 2세대는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본인 적성에 따라 형법, 기업법 등 활동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1·2세대 간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민업종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민자 간 사업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동호회, 계모임 등 제도권 밖 모임을 통한 사업자본 조달도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인의 세탁업, 인도계의 호텔업 등 소수계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산업은 가족간 계승되진 않더라도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 교수 역시 “자영업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 중 하나가 튼튼하게 기반이 다져진 비즈니스 생태계”라며 “한인회, 직능단체들이 활성화될수록 새로운 이민자와 은퇴 이민자간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하다”고 보았다.

선 박 전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창업 20~30년이 흘러 규모가 커진 비즈니스의 업주일수록 경영 활동에 자녀 세대를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선 기존의 노동집약적 패턴에서 벗어나 경영을 체계화,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타 지사 장채원 기자

LA다운타운 빈땅에 ‘HELP’

소니 최 윌리엄스 영예 변협회장도 겸직 중

한인 변호인이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매리 오브라이언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소니 최 윌리엄스(사진) 록포트시 검사를 제12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검사는 존 앤더슨 제12 순회법원 판사가 제3 항소법원 판사로 옮기면서 후임을 맡게 됐다.

임기는 내달 10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7일까지다.

오브라이언 대법원장은 “윌리엄스 검사의 경력을 고려할 때 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윌리엄스는 록포트, 피오리아시의 검사로 재직하며 25년 이상 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서울 출생인 윌리엄스 검사는 1977년 가족을 따라 이민을 왔다.

그는 1994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역사

학 학사 학위를, 1999년에는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윌리엄스 검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피오리아시 검사로 재직했다. 2017년부터는 록포트시 검사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근무해왔다. 여러 법률 단체에서 활동한 덕에 윌리엄스 검사는 일리노이주 법조계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다.

2023년 한인 최초이자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ISBA) 회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시카고한인변호사협회 이사, 시카고광역아시아계변호사협회 명예이사, 일리노이주 변호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 청문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윌리엄스 검사는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오브라이언 주 대법원장과 주 대법원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재 기자

맥아더공원 총격사건 용의자

맥아더 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갠단 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용의자가 유죄 판결 시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KTLA에 따르면, LA 카운티 검찰은 호세 다니엘 아마야(27)에게 살인 미수 5건과 총기 사용 및 심각한 신체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량 가중 혐의를 적용했다. 아마야는 과거 중범죄 전과 2건으로 가중 삼진법(Three Strikes)의 적용 대상이어서 유죄 판결 시 다수의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네이션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에게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추가 형량이 부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격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12시 45분쯤 윌셔 불라바드와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아마야는 권총으로 남성 4명과 여성 1명에게 총격을 가했다. 아마야도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

정윤재 기자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판사에 한인

소니 최 윌리엄스 영예 변협회장도 겸직 중

한인 변호인이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매리 오브라이언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소니 최 윌리엄스(사진) 록포트시 검사를 제12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검사는 존 앤더슨 제12 순회법원 판사가 제3 항소법원 판사로 옮기면서 후임을 맡게 됐다. 임기는 내달 10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7일까지다.

오브라이언 대법원장은 “윌리엄스 검사의 경력을 고려할 때 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윌리엄스는 록포트, 피오리아시의 검사로 재직하며 25년 이상 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서울 출생인 윌리엄스 검사는 1977년 가족을 따라 이민을 왔다. 그는 1994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1999년에는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윌리엄스 검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피오리아시 검사로 재직했다. 2017년부터는 록포트시 검사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근무해왔다.

여러 법률 단체에서 활동한 덕에 윌리엄스 검사는 일리노이주 법조계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다.

2023년 한인 최초이자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ISBA) 회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시카고한인변호사협회 이사, 시카고광역아시아계변호사협회 명예이사, 일리노이주 변호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 청문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윌리엄스 검사는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오브라이언 주 대법원장과 주 대법원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준 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LA서 시작된 K팝·EDM 장르 전국 확산

투어 공연마다 객석 가득 차 음악에 맞춰 환호하는 열기 3월 '비온드 윈더랜드' 무대



지난해부터 남가주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일렉트릭 서울'은 K팝과 EDM의 결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에 발맞춰 SM엔터테인먼트 산하 EDM 레이블 '스크림(Scream)'은 J.E.B, 2Spade, IMLAY, yunji와 함께 지난달 20일 토론토를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등 북미 주요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스크림의 북미 투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매 공연마다 100~200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고, 음악에 맞춰 뛰고 환호하는 에너지로 공연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J.E.B는 "한국에서는 우리를 보기 위해 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북미에서는 K팝과 EDM이라는 장르 자체를 보러 오는 관

객들이라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컸다"며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뛰는 모습을 보고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의 관객들이 열광하는 모습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였다. yunji는 "공연 중 관객들이 사진을 요청하거나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마치 K팝 아이돌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적 들었던 K팝을 미국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투어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Zakky PD는 "이번 투어는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장조사의 성격도 있었다"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미국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호주, 유럽 등으로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팝과 EDM의 결합은 한국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스크림은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댄스 음악 팬덤을 중심으로 꾸준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2Spade는 "최근 K팝 곡들에서 댄스 음악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EDM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IMLAY는 "이번 투어에서도 시별로 느낀 강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크림은 지난 23일 LA와 26일 샌디에이고에서 '일렉트릭 서울'과 협업해 진행됐다. '일렉트릭 서울'은 오는 3월 남가주 최대 EDM 페스티벌인 '비온드 윈더랜드'의 라인업에 합류해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

해외서 인기 'K푸드'... 한국 역수입 붐

고추장버터·꿀떡 시리얼 등 동서양 독특한 조합 트렌드



틱톡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꿀떡 시리얼. [틱톡 캡처]



해외에서 인기인 '바나나맛우유 커피'. [틱톡 및 유튜브 캡처]

"고추장버터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봤을 땐 황치즈인 줄 알았어요." 지난 2년간 유튜브에 올라온 K푸드 관련 영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반응이다. 한국음식이 세계적으로 관심 받기 시작하면서 정작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이 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으며 '역수입' 되는 'K푸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동서양의 독특한 조합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는 '고추장버터'도 있다. 한국의 고추장과 서양의 버터가 만난 '고추장버터'가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고추장의 매콤함과 버터의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이 조합은 파스타, 빵, 고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고추장버터는 10여년 전 해외 한식당에서 '고추장버터 스테이크' 등의 메뉴로 출시된 바 있다. 그러나 'K푸드'

를 상징하는 독특한 레시피로 소셜 미디어(SNS)에서 해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 됐다. 2023년 '고추장버터 국수'의 레시피가 뉴욕타임스(NYT)에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직접 고추장 버터 국수를 해 먹어 봤는데, 고추장의 맛에 매료됐다' 등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고추장버터 국수는 지난해 9월 NYT가 발표한 '독자 선정 히트 레시피 50선'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유튜브에 '고추장버터'를 검색하면 직접 고추장버터를 만들어 먹어보는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고추장버터를 활용한 스테이크 솔루션을 만든 한 국내 요리 유튜버의 영

상은 조회 수 510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인은 모르지만, 웬만한 외국인 은 다 알고 있다는 'K음료'도 있다. 한국 내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와 커피를 섞은 '바나나맛우유 커피'가 대표적이다. 준비물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헤이즐넛 향커피, 바나나맛우유, 얼음컵, 바나나맛우유와 헤이즐넛 커피가 만나 달콤하면서도 은은하고 씩씩한 커피 맛이 나는 게이 음료의 특징이다. 해당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 편의점을 우리 집 뒷마당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예일대, 한류 열풍에 빠지다

한국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강좌 늘리고 교수진도 확충 한국어·한국문화 연구 확대



적 인기 비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같은 기간 예일대 국제 교류처는 대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한국어와 문화 연구 확대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예일대 학보 예일뉴스는 '한류에 올라타다 - 예일대 한국어 및 문화 연구 확장(Riding a Wave: Yale's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studie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강좌를 도입하고 교수진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예일뉴스는 우선 한류로 불리는 세계적인 열풍이 예일대에도 퍼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음악·영화·문학·한식을 접한 학생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관련 강의를 찾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예일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지난해 11월 14~15일 'K팝 생산과 소비'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당시 수많은 참석자가 K팝의 현주소와 세계

학 최초로 '예일-한국 주간행사'를 개최했으며, 수백 명의 참석자가 한국의 문화와 디아스포라 등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부 학과장 애론 게로우 교수는 한국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중국학, 일본학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예일대는 한국학 연구 확대를 위해 한국 경제대 어경희 교수를 초빙하고, 역사학 교수, 대중음악 및 종교 교수, 한국학 도서관 사서까지 채용했다. 한국어 강의 수강생도 급증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해당 강의 수강생은 2017년 연간 100명 수준이었던 반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트럼프-김 '장외신경전' ... "北비핵화 견지" vs "핵방패 무단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자 정상외교 등 정식으로 란에 다시 올라오기 전 '장외 신경전'을 펴는 양상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싱가포르(2018년)와 베트남(하노이), 판문점(이상 2019년)에서 총 3차례 만났던 두 정상이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상외교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상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기지과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미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면서 "위협"과 "새롭고 전방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 "핵방패의 무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며 '리브콜'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는 별개로, 28일



2019년 6월 판문점서 김정은과 만나는 트럼프

백악관을 통해 자신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여부 관련 연합 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

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한 것이었다.

비록 2019년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합의불발)로 끝나면서 첫 정상회담 합의도 빛이 바랬지만, 트럼프로서는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받아낸 '비핵화' 관련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었다.

액면으로는 양 정상이 좁혀지지 어려워 보일 정도의 큰 간극을 확인한 셈이

었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전망이 서지 않은 터에, 북미 정상외교가 조기에 성사되리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리 만무하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에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아직 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조금 더 구체화하길 기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날 선언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려면 최소 수개월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의 '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도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 카드를 조기에 쓰는 것이 효과가 클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라인 후속 인선과 정책 수립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나을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구체화하는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항배에 따른 북미 외교의 공간과 분위기 조성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호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관심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전략과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집권 1기 때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향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철가능한 협상 목표로 삼을지는 별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개헌하지 않는 한 '잔여 임기 4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돌린 채 임기 내 핵동결 또는 ICBM 폐기 등과 같은 중간단계 '스몰 달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려 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결국 북미 정상 간 '본게임'까지는 아직 일정한 시간과 여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강온'을 오가는 치열한 신경전과 '살바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케네디 딸, 장관 청문회 앞둔 사춘 맹폭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후호주 미국 대사가 사춘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미 상원에 촉구했다.

28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케네디 전 대사는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권력에 중독된 포식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전 대통령과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딸로,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와는 사촌지간이다.

케네디 전 대사는 사춘의 성장 과정과 그의 백신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들어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반(反)백신 단체를 설립한 후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부르며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면서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의 백신 음모론에 대해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자녀에게는 예방 접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제약 회사 머크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의 부작용 여부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수입료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계획이라고도 지적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그가 이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85만달러(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케네디 전 대사는 "그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소년·소녀에게 안전하게 투여돼 온 백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부유해지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주니어 후

보자가 과거 헤로인 등 마약을 투약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까지 "마약 중독의 길로 이끌었다"라고도 폭로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16세였던 1970년 약물 남용으로 퇴학당했으며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0세였던 1984년에는 헤로인 소지 혐의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케네디 전 대사는 "그의 지하실, 그의 차고와 기숙사 방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본거지였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전 대사는 또한 "그는 자신의 매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 미서기에 병아리와 쥐를 넣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그것은 주로 절망과 폭력의 비뚤어진 광경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바비(로버트의 애칭-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약물 남용의 길로 이끈 형제자매들과 사춘들은 중독과 질병, 죽음으로 고통받았다"며 "바비는 그의 인생 내내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비판했다.

케네디 주니어의 남동생인 데이비드 케네디는 198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약물 과다 사용으로 숨진 바 있다.

신차 오토론 부담 역대 최고

<트레이드인 구매>

트레이드인 신차 구매자들 4명 중 1명은 오토론에서 네거티브 자산(negative equity)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전문매체 에드먼즈의 지난해 4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새 차량 구매를 위해 기존 차량을 트레이드인한 소비자의 24.9%가 구매한 차량 가치보다 오토론 액수가 큰 네거티브 자산(깡통)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는 지난 2023년 20.4%에서 4.5%포인트가량 상승한 수치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들 중 24.6%는 신차 가치와 오토론 액수 차이가 1만 달러가 넘는 네

거티브 자산을 떠안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 또한 전년 대비 2.4%p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자산 규모가 수천 달러 이상, 두 자릿수 비율을 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드먼즈의 제시카 콜드웰 인사이트 책임자는 "네거티브 자산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이번 데이터는 네거티브 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평균 1만 달러를 넘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신차 가치보다 오토론 액수가 더 큰 깡통 자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s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slawpllc.com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보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과체중이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에어부산 화재

사고직전 48시간동안 17회 운항 국토부 LCC 안전 대책 마련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경상 3명으로 그치긴 했지만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항공기 동체 앞부분이 화재로 전소돼 처참한 모습이다. (부산=연합뉴스)

또 둘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터웨이애 따르면 에어부산의 HL7763 항공

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시간은 총 942분, 15시간 42분이다. 운항 노선은 김포~제주,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해~마카오 등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도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나 정비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에어부산도 설 연휴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대한항공 161대, 아시아나항공 81대, 제주항공 42대, 티웨이 30대, 진에어 27대, 에어부산 22대 등이다.

LCC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CC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어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와 정비 설비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줄이고, 정비 인력은 현재 309명에서 올해 내로 35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간 합동 점검단을 통해 LCC를 비롯한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와 시설 등을 살피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LCC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이재명 향해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 사과해야”

이재명의 문예방 전날 폐북 글 “일극 체제 당내 문화 바뀌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해 지난 총선 과정,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편향 발언 등을 지적하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4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그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까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부 강성 친명을 겨냥한 듯 “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편향했던 언행들

에 대해서는 발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

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음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한다.

여 “‘이재명 친분’ 문형배,尹탄핵심판 손 떼야...공정성 우려”

‘여야 합의 후보’ 새로 임명해야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요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

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면화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다.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식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30th - FEB. 6th, 2025

TONGTONGBAY
Cooked Razor Clam Meat

통통배 맛조개살

10.58 OZ X 2 PKG/SET

2 FOR THE PRICE OF ONE!
한 팩 가격으로 한 팩이 더!

\$7.99
 PKG



KOTO Electric Detachable
Stainless Steel Hot Pot

코토 분리형
전기 스텐 전골냄비

~~Reg. \$69.99~~
\$39.99
 EA



ROSE GOLD/4 L -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트럼프 2.0 '혼돈의 질서' 대응하자

미국, 강한 트럼프주의 추구
세계 질서와 안보 혼돈 확대

트럼프 2.0시대가 막을 열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세계질서를 이끌던 탈냉전 시대는 저물었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면서 세계 관여를 최소화하려 한다.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 미국 이익, 다자 외교보다 양자 외교, 가치보다 거래, 세계 질서 유지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태세다. 돌아온 트럼프는 '충성스런' 참모, 강력한 어젠다, 양원과 사법부 장악을 기반으로 1기 때보다 더 '강화된 트럼프 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미 고립주의에 서방 결속 약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외교를 공언했고, 이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교란의 축'에 맞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할 서방의 결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미국발 복합적인 파고를 잘 넘기려면 불확실성에 놓인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 한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사도 광산 문제에서 보듯 여전히 과거사와 감정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의 필요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 안보에 중요하다.

우선 북한 대진환과 다중 위기의 공동 대처 필요성이다. 동북아는 다양한 불안정인 요소를 안고 있다. 핵 무장 완성 단계에 접어들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을 확보하며 더욱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공세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기존 지역 질서를 흔들려 한다. 지정학적 단층대인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위협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세력 균형을 맞춰야 할 미국은 트럼프주의로 동맹 체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22일 열린 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나 쿼드(미·일·호주·인도)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개편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외교 장관 회담에서 각각 한·미·일 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이런 패일 수록 아시아에서 2개 나라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자,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후 80년간 한·일이 누린 평화와 번영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덕분이다. 무역 입국의 공통점을 가진 한·일은 자유무역 유지를 위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파고를 함께 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

둘째, 경제 안보 분야에서 상호 이익의 근대화 필요성이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안타깝게도 한·일 양국은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국면에서 그 손실과 기회비용을 냉정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커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경제·외교·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윈-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양국 기업들이 수소에너지 생산·수송·유

동·이용 등 종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좋은 예다. 한국의 제조업·마케팅 능력과 일본의 풍부한 자금력·원천기술을 결합해 인프라·자원개발·플랜트 분야에서 제3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유망하다.

한·일 협력은 필연적 요구

셋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일은 자연스런 지역 전략파트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지역 안보 체제와 여러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정착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중국의 압도적 존재감으로 역내 균형 세력이 없고, 지역(집단) 안보 체제도 없다. 미국과의 지속적 연계와 함께 중증적 지역 협력체를 통해 범치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한·일 모두에게 정답이다. 이 양대 과제를 추구하는 데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주의 지역질서 유지에 공통된 입장인 양국의 협력은 필연적 요구라는 점에서 자연스런 전략파트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은 동북아의 안보

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본 내 7개의 유엔 사후방 기지로 연계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통합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한층 강력해진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관한 상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서도 한·일 협력은 중요하다. 핵무장 국가의 문턱에 다다른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중국의 지원을 뒷배로 해 핵무장의 기정사실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 핵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재앙이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미 봉쇄로 대북 제재 해제와 부분 핵 군축을 맞바꾸는 '스몰 딜'을 막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공조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 또 대북 역지에 있어서도 한·일이 미국의 확장 역할을 강화하는 데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분담했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북 경제 지원 조치에 일본의 참여도 필수다. 통일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다. 또한 통일 후 예상되는 막대한 북한 경제 재건 비용 마련에서 세계 최대 순자산국이자, 아시아개발은행 주도국인 일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외 취약성이 높은 한국은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교집합이 큰 일본과 견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혼돈과 다중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외교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과 오는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이 2기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대응에 긴밀히 협력한다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신각수 전주필사

베이징의 대사들

"주권·국경 문제로 동맹과 경쟁한다면, 우리가 주고 싶지 않았던 통행권을 푸틴과 시진핑에게 주게 된다."

지난 14일 귀임한 니컬러스 번스(69) 주중 미국대사의 직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로 돌아간 번스 대사는 이임 인터뷰에서 3년간 겪은 베이징 근무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의 신뢰를 얻고자 힘을 썼나, '중국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내 대답은 항상 같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을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문제다. 그럴

이 공적·사적으로 하는 말이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 중국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벗어나 중국의 행동을 판단하고 중국에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2023년 말 귀임한 타루미 히데오(垂秀夫·64) 주중 일본대사는 시사 월간지에 8회에 걸쳐 걱정 의 회고록을 남겼다. 일본 외무성 내 차이나 스쿨의 대부격인 히데오 대사는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개념을 만든 주인공이다. 2023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 기념식에서 주일대사 출신 왕이(王毅) 정치국위원이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꼭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구축합



2023년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의 국경절 행사에 참석한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시다"라고 했다는 일화도 기록했다. 그는 "중국과 마주할 때 '중국=당' '당=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고 조언한다. 시사비비와 다각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제이미 플로크루즈(74) 현 주중 필리핀 대사는 베이징 특파원 사회의 전설이다. 플로크루즈 대사와 중국의 인연은 반세기가 넘는다. 1971년 첫 중국 방문 당시 반공주의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귀국길이 막혔다. 문혁 와중에 농촌으로 내려가 노동을 경험했다. 마오쩌둥 사망 후 덩샤오핑이 대학시절을 부활시킨 1977년 베이징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뉴스위크·타임·CNN의 베이징

특파원으로 활약했다. 2014년 양회에서는 대학 동기 고 리커창 총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얻었다.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국대사에 임명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있다. 저서 『클래스 77-내 동기들은 중국을 어떻게 바꿨나』에 생생한 중국 경험을 남겼다.

중국의 5000년 이우인 한국은 어떤가. 변변한 대사 회고록을 본 적이 없다. 도돌이표·시계추 외교를 반복한다. K마크를 붙일 만한 대(對)중국 외교를 보고 싶은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려,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페이지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VA- 센터빌/아난데일/폴스처치
페어팩스/뉴포트뉴스
MD- 게이더스버그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3~2/7 → 전화 예약 필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소름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삼강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항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항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헤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슬립질점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에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핑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00kg 무게를 채우고 따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1/40리터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 관상동맥 질환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가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감·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등급 매트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호르몬 Safety Zone

1억씩 출산지원 갓부영... “이런 게 어른다운 노인이 할일”

(God+부영)

국군·경찰수입되겠다
지금 아이 낳아야 군·경찰 유지
올해도 23억 이상 지원금 내놓기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꿈꿔왔던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논의의 포문을 연 이가 바로 이종근(84) 부영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해 현재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두 달 만에 화답한 셈이다.

이 회장은 저출생 문제도 먼저 말 벗고 나섰다. 지난해 초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66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것. 젊은 직장인들이 환호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컸다. ‘갓부영’(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호평이 이어지자 주요 기업도 지원을 크게 늘린 출산지원책 발표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을 최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만났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정면 돌파’를 택한 연유가 궁금했다.

“하시는 일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라는 건 일종의 ‘역할론’이예요. 내 명함에는 ‘어른다운 노인’이라는 문구도 적어 놓았죠. 저출생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 같아도 우리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 못 할 정도로 커져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계속 일깨우고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얼마 전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이 추세면 현재 1000만 명 정도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해요. 전체 인구 5000만 명에서 노인 2000만 명, 어린이·청소년 1000만 명을 빼면 생산 인구는 2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손자 세대까지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노인 비율 줄면 청년·기업 등 부담 덜어
-노인 연령을 올리면 해결될까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호 기자

“노인 인구를 줄여 그만큼 생산 인구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2050년에 노인 인구가 지금과 비슷한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나옵니다. 정부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돼 일각에서 반발도 나옵니다.”

“당장 노인 연령을 75세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연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10년 뒤에 노인 연령이 75세가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현재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이지요. 월급은 6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첫해에 40%를 받고 연 2%포인트씩 줄여 75세 때는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은퇴 전 500만원 받던 사람이 75세 때 100만원을 받게 돼요. 노인도 경제 활동을 더 오래 하니 좋습니다. 연금 고갈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0대 정도의 제가 만났던 분들은 ‘맞아, 우리 그렇게 늙지 않았어’ ‘일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전부 그런 반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노인 연령 상향 공약을 했는데, 당선된 것도 많은 노인이 제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전엔 60세에 회갑 잔치를, 70세에 교회 연을 하며 상노인 취급했죠. 지금 시대엔 의학 발달로 70대도 건강해요. 90세는 돼야 진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젊어요(웃음).”

“젊은 세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술적으로 노인 수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 연령이 순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형태로 임금을 줄여나가니까 기업도 부담이 덜할 거로 봅니다.”

“정부도 기대가 큰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했으면 꽤 시끄러웠을 거예요. 노인이가 먼저(노인 연령을 상향)하자고 했으니 이번엔 논의에 진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노인이 많아지면서 공경의 가치도 희석되고 있어요. 경륜과 경험이 쌓인 노인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노인도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좀 어른스러워져야 해요.”

“출산지원금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스타일입니다(웃음).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돈(출산지원금 등)을 주는데 아이가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10년에 걸쳐 주겠다는 식이었어요. 봄에 나무를 보면 잎이 동시에 나지, 하나씩 나오

지 않아요. 쓸데는 많은데 찝찝찝 찝 찝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한번에 줘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음식도 직접 먹는 것과 냉채만 먹는 것에 큰 차이가 있듯이 직접 받아야 당사자도 ‘출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크구나’ 바로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는 국토, 국민에 의해 존재하는데 국토는 변함이 없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고, 물건이 없으면 수입하면 되지만 군대와 경찰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있나.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는 자국민이 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야 20년 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계속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시무식 때도 출산지원금을 줄 예정이고, 현재 대상자를 추리고 있어요.”(부영그룹은 매년 입춘에 맞춰 시무식을 연다.)

출산지원금 받은 직원들 “회사 도움 고맙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산지원금 지급 후 직원들의 손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한 직원이 ‘제 자식을 낳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자식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식을 낳아준 겁니다’라고 답해줬어요.”

“실제 부영에서 직원 출산율이 올랐나요. ‘직원들 임신 소식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웃음). 지난해 공개채용 때도 지원자가 이전 대비 5배 이상 늘었고요. 지난해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 자녀가 2021~2023년생 70명으로 대략한 해 23명이 받은 것으로 보면, 올해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부영그룹은 올해도 23억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비(非)과세하기로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과세 방식에 따르면 1억원을 줘도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6000만~7000만원 정도였어요. 출산장려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기획서를 작성해 2년 전부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쉽지 않았습니. 일단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잘 안 되면 세금 줄여 어맞자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법 개정까지 꽤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몇 년 전에도 고향 이웃, 초중고 동창, 군 동기·선우배 등에게 1억원씩 준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개인 사재로만 2650억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 차원에서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지금까지 사회공헌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기부에도 적극적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마지막에 제가 다 못 가져간다는 것을 살면서 알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더불어 사는 게 최선이 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부도 한국 사람이 기여해서 그분들 생활이 나아지면 부영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4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어려움’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등산할 때 80~90% 오르면 소위 말하는 ‘갈딱고개’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등산을 안 한 게 돼버려요. 결국 올라야 정상에 도달하는데 그걸 힘들었다고 하지 않고, 저는 돌파했다고 말합니다. 다 목표(정상)를 위해 관리하고 성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내가 말을 해도(젊은이들이) 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근검절약하고 조금만 더 검소했으면 좋겠어요. 검소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지정석 갖고 다투지 말고 내 손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노소간에서 서로 조화롭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백민정 기자



지난해 2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다둥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개인스빌 싱글 레이크 매니저스 콘도 \$1,060,000
방4, 욕4.5, 차고2, 4433 sqft, 2004, 0.3acre, 풀인오, 스크린
- 알다성금 \$1,250,000
방5, 욕4.5, 차고2,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건물
- 천틀리타운 \$799,000
방4, 욕3.5, 차고2,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연드유닛, 1st owner, 내부외부 잘 관리, 최고 학교
- 천틀리타운 \$879,000
방4, 욕4.5, 차고2, 3,228 sqft, 2016, 연드유닛, 전부 업그레이드, 최고 학교
- 팜블린 콘도 \$485,000
방2, 욕2, 차고2, 1,335 sqft, 2016, 연드유닛, 차고2, 테라스 방2, 욕2, 1335 sqft, elevator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상업용 마장원텐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er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코스타리카 2/4~2/8 4박5일 \$1990(항공포함)
 호주&뉴질랜드 2/12~2/23 11박12일 \$3790+항공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2/20~3/1 9박10일 \$3590+항공
 아프리카&두바이 2/20~3/5 13박14일 \$9850+항공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7~3/24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6박7일 \$2990+항공
 북방학 특선 남프랑스 4/14~4/20 6박7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차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4/22~5/2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4/30~5/8 8박9일 \$33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5/7~5/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3~6/11 8박9일 \$56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7/1~7/4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8 8박9일 \$33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7~10/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튀르키예 성지순례(사마리아 7교회) 10/21~10/30 9박10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사마리아)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13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아테네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던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 1차 04/15~04/25 **마감**
- 2차 04/22~05/02
- 3차 06/17~06/27
3세대가 함께하는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 4차 09/16~09/26
- 5차 10/14~10/24
- 6차 10/21~10/31
- 7차 10/28~11/07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제주(옵션)

- 걸모습이 같다해서 속내용의 맛과 멋이 같지 않습니다.
 - 인사동 사거리 탑여행사 지사가 투어 직접 운영합니다.
 - 인솔자와 가이드, 호텔과 식사와 간식이 다릅니다.
 - 특별 3세대 상품으로 모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과 손자손녀가 함께 하는 영어와 모국어 선택으로 소·대규모 단체나 자유일정을 짜드립니다.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일반부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일반부와 \$170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부와 \$180차이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부와 \$180차이	롯데호텔 제주 일반부와 \$250차이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연합상품

3박 4일 서해안 \$849+항공	4박 5일 동해안 \$999+항공	3박 4일 동경 \$114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15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219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남 \$555/여 \$595 미국국적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나트랑/달랏	대만	싱가폴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3박 5일 \$490+항공 출발: 각주목요일 왓포사원, 플로세움스, 피타야 아시안,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번바위공원, 태국독산물	3박 5일 \$690+항공 출발: 각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각주 일요일 마블아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고, 쾨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각주 수요일 롱탄아트 갤러리, 나트랑 대성당, 아시안, 세일링 클럽, 혼츄, 포나기르 사원, 아이리조트 스파, 달랏 아시안, 달랏대성당, 비오디이1 공전, 린푸옥사원	3박 4일 \$690+항공 출발: 각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후제 아시안, 서문경거리, 태로산원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850+항공 출발: 각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랜드, 핸드스 웨이 브리지, 하치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리아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성금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출발: 3/20, 4/3, 4/10, 5/1, 5/8, 5/15
\$199

당일 투어 체리 브로섬 런치 크루즈
 3/27, 4/2 **\$189**
벚꽃길 투어 3/28, 4/3, 4/4 **\$45**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 동계시즌 출발 보장 *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 가능)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로렌티스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선(옵션)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 도시와 3대캐넌까지 일산 여행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	--	--	--	---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AI 보호관찰관 생기면 영화 같은 범죄 예언 가능할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다. 예방이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해서 체포, 구속하고 재판을 거쳐 교정하는 일에 많은 힘을 쓰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도 상당한 역량을 쏟고 있다. 정부가 하는 범죄예방은 크게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으로 나뉜다. 일반예방은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예방은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로 특별예방에 힘을 쏟는다. 왜냐하면 일반예방은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범죄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예비군 훈련을 소집하듯이 일반 국민들을 강당에 강제로 불러모을 수가 없는 것이다.

18년간 1946명 선도했는데 10명만 재범

1841년 어느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한 법원에서 이런 이유로 판사가 알코올중독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 했다. 그때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라는 구두 제조자이자 금주 운동가가 손을 들고 자신이 그 피고인을 데리고 살면서 바꿔보겠다고 나섰다. 판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징역형 선고를 미루고 3주 후에 법정에서 다시 보자고 했는데 3주 후 다시 법정에 나온 피고인은 거짓말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판사는 결국 그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1센트의 벌금만을 선고했다. 이것이 오늘날 '보호관찰'의 효시이다.

이후 존 오거스터스는 18년 동안 1946명의 대상자를 선도했는데 이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놀랍게도 단 10명에 불과했다. 단순히 보호만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체계적인 활동도 추가로 했다. 영미에서 보호관찰을 가리키는 '프로베이션'(probation)이라는 용어도 그가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존 오거스터스는 보호관찰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후 보호관찰 제도는 영국(1887년), 독일(1922년), 일본(1949년)에서도 입법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야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도입되었다. 2013년에는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무부에는 '범죄예방정책국'이 있고 그 산하에 전국 60여 개 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을 쏟는 일이 보호관찰이다. 전과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이다. 2023년 나온 드라마 '이로운 사기'는 보호관찰관을 주인공으로 삼은 최초의 드라마이다. 보호관찰관 고요한(윤박 분)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나 가석방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집 앞에서 제때 귀가하는지를 살펴보고도 하고, 대상자 앞에 불쑥 나타나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주연 배우 톰 크루즈가 가상의 스크린을 통해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있다. [중앙포토]

물어보기도 한다. 2024년에 나온 드라마 '무도실무관'도 보호관찰관과 동행하는 무도실무관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현실의 보호관찰관도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면담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과거 공범을 만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음주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도 한다.

현재 전국의 전자발찌를 부착한 4000여 명의 대상자들을 서울과 대전의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필자는 TVN '알쓸범잡' 촬영 때 서울의 중앙관제센터에 가보았는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란 화면에 지도를 바탕으로 5000여 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에게 대한 각종 정보가 종류별로 떠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린다. 대상자가 이동할 때에는 이동 속도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차를 타고 가는지도 알 수 있다. 수상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5분

대기조가 출동한다. 피해자의 위치도 파악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의 반경 1km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시작한 이후 기준에 비해 살인의 재범률은 4.9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성폭력범죄도 기준에 14.1퍼센트에서 2022년 현재 0.73퍼센트로 감소했고 유영철·정남규·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이 거의 사라졌다.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범죄자를 개별적으로 관리, 관찰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재범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범죄를 또 저지르는 비율은 7퍼센트 정도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3년 내에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인 재수감률이 25퍼센트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효과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렇게 밀착해서 관리하는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잘 협조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심심치 않게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흥기를 휘두르거나 돌로 내리찍으려고 하는 일도 있다.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각종 고소, 고발을 해서 괴롭히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다. 대상자가 자살이나 사고로 죽으면 시신에서 전자발찌를 제거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력은 많이 부족해서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실정이다.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가 영국이 15명, 일본이 21명, 미국이 54명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가 119구급대원의 4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고충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얼핏 느끼는 인상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는 보호관찰관 활동을 그린 영화 '무도실무관'. [중앙포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범죄예방관리국은 범죄가 일어날 일시, 장소를 정확히 예측한 다음 존 앤더턴(톰 크루즈 분) 탐장을 범행 예상 현장으로 급파해서 살인을 막고 범인도 체포한다. 가령 자신의 아내가 자기 집 침대에서 다른 남성과 동침하려는 것을 목격한 남편이 내연남을 죽이려는 순간 존 앤더턴이 뛰어들어 살인을 막고 그 남편을 살인미수죄로 체포하는 식이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공권력이 출동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정말 범죄가 거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말고 현실에서도 언젠가 이런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을까.

국민 사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검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일이다. 이 영화가 1956년에 나온 필립 K 디크(Philip K. Dick)이라는 SF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 만큼 이 영화 속 범죄예측은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물속에 가두어 둔 3인의 예언자들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 이중 2인 이상이 한 예언을 '다수의견 보고서(Majority Report)'라고 부르고, 1인의 예언을 '소수의견 보고서(Minority Report)'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자체로 범죄예측이 100퍼센트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마음은 유동적이어서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로도 사람별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온라인 쇼핑물에 들어가면 나의 취향을 저격하는 상품들이 추천되고 있다. SNS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어떤 영상에 오래 머무는지, 검색하는 시간대가 어떤지, 얼마 정도 소비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폭력적인 어휘를 자주 쓰고 폭력적인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폭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예측 시스템은 윤리적,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수반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검열하는 측면이 있고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얼굴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리는 장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정부의 감시와 간섭은 심해지지만 범죄는 줄어든다.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반대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정재민 변호사·작가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1년 새 군장성 20명 숙청... 시진핑 집권 후 숨죽이는 별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杆子里面出政權)”. 마오쩌둥(毛澤東)의 이 말은 권력의 토대는 결국 무력이라는 점을 잘 말해준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그래서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 때 급히 발탁한 장쩌민(江澤民)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장군들과 밥을 먹으라고 권했다. 한데 장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胡錦濤)는 그러질 못했다. 장이 키운 장군들 틈바구니에서 기를 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약세 지도자란 말이 따른 건 당연하다.

시진핑(習近平)은 달랐다. 바로 군부 손보기에 나섰다. 그것도 최고위층을 겨냥해 장쩌민 측근인 두 명의 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부패 혐의로 잡았다. 쉬차이허우(徐才厚)는 재판을 앞두고 암으로 사망했고, 귀보송(郭伯雄)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시진핑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이는 1927년 홍군(紅軍) 건군 이래 수많은 전투와 문혁(文革)의 광란 속에 스러진 장군들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렇게 다진 군권을 바탕으로 헌법까지 수정하며 3연임을 성공했다. 한데 그런 중국 군부가 심상치 않다.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숙청 바람이 불고 있다. 시진은 2023년 7월로 당시 중국군 핵 자산의 중심인 로켓군이 쏘대발이 되고 말았다.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李玉超)를 필두로 부사령관 류광빈(劉光斌), 전 부사령관 장진중(張振中) 등이 모두 당 중앙군사위 기율감찰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해방군보에 '집단지도체제' 글 실려 주목 또 우국화(吳國華) 전 로켓군 부사령관이 갑작스레 사망했다. 66세. 중국의 한 매체는 병사(病死)라고 했지만, 대만 언론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대체 뭐가 로켓군 지휘부를 통째로 날렸나? 이런 일엔 늘 그러하듯 겉으로 알려진 혐의는 부패다. 그러나 흥흥한 민심은 기이한 소문을 낳는다. 당(唐)대의 예언서 추배도(推背圖)가 화자되기 시작했다.

추배도의 예언에 따르면 어떤 군인이 황제를 해치려고 활과 칼을 숨겨 뒷문으로 들어온다. 현대의 활은 미사일이다. 따라서 로켓군이 시진핑을 해하려는 걸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서인간. 당시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시진핑은 베이징으로 직접 날아오지 않고 중국 지방 도시를 경유해 귀국하는 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중국 마카오의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주둔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PLA) 주둔 부대 병력을 시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정을 짜이 같은 소문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로켓군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기밀 유출로 알려진다.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가 중국의 20차 당 대회(2022년 10월) 이후 중국 로켓군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상당한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거다. 일반은 알기 어려운 중국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 정보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중국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리며 로켓군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된 숨은 배경이란 이야기다.

그리고 보니 중국이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폭 강화된 반(反)간첩법 시행에 들어간 게 2023년 7월부터다. 중국 정부는 과거 간첩 혐의 적용 대상을 국가의 기밀이나 정보를 빼돌린 행위로 국한했는데 이때 법을 개정해 기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엔 사실 뭐가 국가안보에 해당하는지 개념 규정조차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데 로켓군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3년 9월 중순부터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 낙마설이 돌기 시작했다. 중국군 장비개발부는 이보다 두 달 앞선 2023년 7월 말부터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리상푸 국방부장이 걸려들었다. 부패가 장비와 연결되는 건 너무 쉽다. 리상푸는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일 때 러시아산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

도 한 인물이다.

무기 구매 담당이었던 리상푸 숙청에 이어 이번엔 사정의 칼날이 중국 방산업체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중국 항천과기그룹과 병기공업그룹, 병기장비그룹의 대표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에선 “무를 뽑았더니 흙이 따라온다”는 말로 군수산업의 비리를 질타했다. 중국 미사일엔 연료 대신 맹물이 채워져 있고 원래 미사일 연료는 휘귀(火鎗, 중국식 샵샵)를 해먹는 데 썼다는 기막힌 보도가 꼬리를 이었다.

2023년 연말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리위차오와 장진중은 물론 장위린(張育林) 국방과 학기술대학 교장, 라오원민(饒文敏) 장비발전부 부부장 등 로켓군과 장비조달 라인의 고위 장성 9명을 전인대 대표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숙청 작업은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돼 연초 시진핑의 친위 세력으로 여겨지던 웨이핑

허(魏鳳和) 전 국방부장의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리상푸가 당적에서 제명되고 7월에는 웨이핑의 당적 역시 박탈됐다. 약 1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군 숙청 작업으로 20여 명의 장성이 쓰러졌다. 이는 무얼 의미하나? 시진핑에 이어 현재 중국군 제2인자로 평가받는 장유사(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다. 장유사가 장비발전부 부장일 때 그 아래 부부장이 바로 낙마한 리상푸로 같잖아 결국엔 장유사로 향하지 않겠냐는 관측에서다.

‘평리위안 여사 지지’ 동전, 제3세력 부상 중국군 최고 지도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모두 6명이다. 주석은 시진핑, 부주석은 장유사와 웨이잉둥(何衛東), 위원은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 장성민(張升民) 중앙기율위 부서기 등이다. 시진핑 다음가는 군권을 가진 장유사와 웨이잉둥 두 사람은 중국군 내 각기 다른 파벌을 대표한다. 장유사와 류전리는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어 월전파(越戰幫)이라는 말을 듣는다.

반면 웨이잉둥과 마오화는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주도하는 동부전구에서 근무해 대해파(台海幫)이라고 한다. 두 세력이 시진핑에 충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숙청을 통해 장유사 파벌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장유사는 지난해 여름 이

후 활발한 활동으로 군내 입지가 더욱 높아졌다는 말을 냈었다.

지난해 8월 장유사는 방중한 미국 안보보좌관 설리번을 만났고 10월엔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모두 만나는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말 웨이잉둥 세력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사실상 지난 1년여 숙청 작업을 주도해온 마오화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힌 것이다.

마오화의 혐의는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만 알려진다. 장유사는 부친 장종원(張宗濤)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전우로 알려져 있지만, 마오화 또한 시진핑이 푸젠성 근무 시절부터 연을 맺은 핵심 측근이다. 군 서열 5위인 마오화 낙마가 웨이잉둥 군사위 부주석을 위시한 대해파에 과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중국군의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는 글이 해방군보에 발표돼 놀라움을 산다.

중국군은 이제까지 시진핑 1인 체제를 뜻하는 ‘군사위 주석 책임제(軍委主席負責制)’를 강조해왔다. 이는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하자는 논리다. 한데 느닷없이 해방군보가 ‘집단지도체를 우선해 견지하라’는 글을 실고 “우리 당은 중대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당 집단이 결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지도자의 분담 책임제(首長分工負責制)”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중화권 호사가들은 시진핑의 군내 권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선부른 관측을 내놓는다. 장유사가 실제 중국군 실세가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러나 글썩다. 그보다는 웨이잉둥 세력을 이용해 지난 1년간 장유사를 떠받치는 군내 파벌을 타격한 시진핑이 이제 반대로 장유사의 힘을 빌려 웨이잉둥 측근에 일격을 가하는 고도의 통치술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 파벌을 지형으로 볼 경우 장유사는 산시방(陝西幫)을 대표하고, 웨이잉둥은 푸젠성 일대 민장방(閩江幫)의 우두머리다. 최근 중국에선 이에 맞설 제3의 군 세력으로 산둥방(山東幫)이 부상 중이란 말도 있다. 동원(董軍) 국방부장이 그런 인물로 동향 출신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군을 틀어쥐는 건 대권 장악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국군의 세력 변화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다. **이상철 중국연구소장**

중국군 주요 사건 일지	
2023년	9월 리상푸 국방부장 조사
	12월 군수산업 거물들 낙마
2024년	6월 리상푸 전 국방부장 당적 제명
	7월 웨이핑허 전 국방부장 당적 박탈
	11월 마오화 중앙군사위원 정직 처분

겨울 아이슬란드 오로라 사진 출사

★ 일시 : 2025년 3월 20일 ~ 3월 30일 ★

20년 경력의 전문 풍경 사진작가와 함께 환상적이며 우주의 마법과도 같은 오로라와 지구이면서도 또 다른 행성인 화성에 온듯함과 불과 얼음 그리고 빙하와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 겨울의 설원, 설경의 드라마틱한 자연풍경과 오로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6명 제한 (현재 3자리 남았습니다)
풍경사진작가님 (초보, 중급, 고급) 워크샵 병행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일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

문의: 703-341-7222 (메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세지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풍경사진에 대해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구강교육치과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얼굴이 '넙적하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다. “난 얼굴이 너무 넙적해서 고민이야”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은 의미를 나타낼 때 이처럼 ‘넙적하다’ 또는 ‘넙적하다’고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넙적하다’고 적어야 바르다. ‘넙적하다’는 ‘넙다’에서 온 말이다. 한글맞춤법 제21항을 보면 겹받침에서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경우 그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고, 앞에 것만 발음되는 경우엔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내용이 있다.

‘넙적하다’는 발음이 [넙짜카다]와 같이 나기 때문에 ‘넙-’의 ‘ㅂ’이 발음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간의 형태를 밝혀 ‘넙적하다’로 적는다. ‘넙적하다’ ‘넙따랴다’는 [넙짜카다] [넙따라타다]로 발음한다. 어간 ‘넙-’의 ‘ㅂ’이 사라지고 [넙-]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 것이다. ‘넙적하다’는 부사 ‘넙적’에 ‘하다’를 붙여 만든 동사로, ‘넙적하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큰 개가 고기를 넙적하며 받아먹는다”에서와 같이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뿔뿔히 벌었다가 닫다’는 뜻으로 쓰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이 촛불이 폭풍에 꺼지지 않기를



헨리 조
선교사

아이티에 있는 우리 딸 위슬린은 대학 1학년이다. 15년 전 아이티 대지진 직후 여자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인 ‘하우스 오브 홉(House of Hope)’에서 다섯 살의 위슬린을 만나 입양을 계획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를 고아원에 둔 채로 딸 삼아 뒷바라지하며 키웠다.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기도 했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 입학에 꼭 필요한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떨어져서 상심하기도 했다.

갯길이 길을 비운 틈을 타 오랜만에 만난 아이는 엄마인 내 아내를 안고 평평 울더니 두 번째 시험을 봐서 바칼로레아를 통과하고 수도 포토프린스파바에 있는 아리스티드 대학교 간호학부에 진학했다.

아이티를 생각하면, 아이가 이만큼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자란 하우스 오브 홉은 고아원 중에서는 가장 윤곽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다. 아이들은 밥을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내가 아는 한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는 고아원은 이곳이 유일하다).

아이마다 침대가 하나씩 배정되고,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환경을 갖춘 곳

다. 위슬린은 아주 어려서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도 했고, 언젠가는 뷰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현실은 어려웠지만 아이는 미래를 꿈꾸며 나이가 들더니 간호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이 좋다고 늘 강조하던 우리 부부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는 대학 진학을 통해 꿈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간호학과 학생 유니폼과 학교 다닐 준비를 다 했는데, 학교 다니는 길이 걱정이었다. 미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학교는 갯단이 활개를 치기 전에도 늘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지역이었다.

고아원에서 2.5km 되는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지만 통학하는 길은 늘 아슬아슬하다. 학교는 다행히 지난 가을 며칠씩 문을 닫은 외에는 계속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자주 왓츠앱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위슬린은,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정식 대학에 보낸 아이이다.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나 간호학원이나 기술학교 같은 곳에 다닌 아이들은 있었지만, 바칼로레아를 통과하고 4년제 대학에 처음으로 진학한 것이다.

지금 아이티 현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도 한 우리에게 그것은 희망이고 꿈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고 질문했다. 나라 전체가 폭력적이고 낙심전만인 상황에서도 아이티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에 촛불 하나씩 켜고 꿈을 꾸다.

한편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우리도 그리고 있다. 자라서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을 품은 촛불을 우리는 폭풍 속 같은 세상에서도 지켜내고 싶다.

실학산책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박석무
우석대석좌교수

옛날의 경전을 읽어보면 맹자(孟子)처럼 부끄러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성리철학을 수립한 맹자는 의(義)의 단(端)이라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거론하여 인간 내면의 수치스러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부끄러움 치(恥)라는 글자를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부끄러워함은 중대한 일이다(恥之於人大矣)”라고 선언하여 수치심이 인간의 삶에서 지닌 의미가 대단하다고 했다.

주자(朱子)도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부끄러움이란 나의 마음속에 지닌 고유한 수오지심이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성현의 지위에 나아갈 수 있으나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니 매우 중대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부끄러움에 대한 의미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후회할 때 진보할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해지는 이야기에 ‘후안무치(厚顏無恥)’나 ‘철면피’나 하는 말들이 있다. 얼굴

이 두꺼워 어떤 잘못된 일에도 수치스럽다는 태도가 없고, 얼굴에 철판을 깔 듯 부끄러운 표정조차 짓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있다.

인간이 본래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바로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지 않고서야 반성이라는 덕목은 나올 수 없다.

짐승들이야 자각하는 양심도 없고, 양심이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마음, 즉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정약용도 회갑을 맞는 해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지은 자서전 격인 글에서 생애 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인생의 목표인 ‘현인(賢人)’ 수준에 이르렀노라는 각오를 표현한 바 있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저지른 잘못도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잘못에서 벗어나지만, 후회하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생각조차 지니지 않는다면 그때는 큰 죄인이나 악인이 되어버리고 짐승으로 추락해버린다는 성현의 말씀이다.

오늘의 세상을 보자.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런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지도급 권력자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표정이라도 짓는 경우를 본 적이라도 있는가.

만인이 인정하면서 저런 일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하는 일에도 일체의 잘못은 없고 사과나 반성나 빛도 없다는 데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절대로 속이거나 감출 수 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양심, 오직 자신만은 자신의 양심을 알 수가 있고 하늘만은 인간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명천지의 하늘이 내려다보는 양심, 잘못하고 느끼는 부끄러움, 죄를 짓고 느끼는 수치심, 그런 것을 어떻게 숨 두리째 감출 수 있는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매년대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넌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세계 경제는 장밋빛인데 우리만 왜 어려운지 가슴 답답”

스위스에서 열린 어느 건물에 감금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 때 말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주(州)의 주지사와 양자 회담을 하고 나오는데 경찰이 문을 막았다.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 회담하고 1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다보스에 온 딱 한 사람의 경호를 위해서였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가 지나갈 길에 테러 공격이 있을까 봐 인근 건물 주변을 모두 봉쇄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워 받은 특별대우라고나 할까. 다보스 포럼엔 종종 이런 ‘뜨거운 감자’가 있다. 지난해엔 젤렌스키였다.

손글씨로 ‘Trust in Korea’ 쓴 명함 건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 포럼 초청을 받았다. 한국 정치인으로는 유일했다. 다보스 출발 며칠 전 주최 측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았다. 세계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미디어 리더 브리핑’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야당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13위 경제 선진국에서 게임과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였다.

흔쾌히 수락했다. 다보스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엔 ‘젤렌스키’, 올해는 ‘윤석열발 쿠데타’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서였다.

사실 다보스와 워싱턴을 놓고 고민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고 주위에선 참관을 권했다. 더군다나 워싱턴은 4년 가까이 세계은행에 근무하며 다른 어떤 곳보다 친근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다보스행’을 결정했다. ‘사진’보다 ‘내실’을 기하고 싶었다. 취임식에 가도 멀리서 구경만 하고 유력 인사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오히려 다보스에서 ‘트럼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게리 콘(Gary D. Cohn) IBM 부회장은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 정책실장 격이다. 당시 경제부 총리였기 때문에 알고 지낸 사이였다. 7년 만에 다보스에서 반갑게 재회하면서 한미관계에 관한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정보교환, 그리고 경기도와 트럼프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약속했다.

사라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아칸소 주지사는 트럼프 1기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다. ‘트럼프의 입’ 역할을 하던 핵심 최측근 인사 중 하나다. 아칸소 최연소 여성 주지사, 미국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샌더스 주지사와는 배터리, 스타트업, 자동차 산업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앞으로의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디어 리더 브리핑’에는 이름만 대도 아는 워싱턴에서 온 중견 언론인도 있었다. 트럼프 취임, 그리고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에 대해 물었다. 중요한 주제여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게리 콘 IBM 부회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 김동연 지사]

콘·샌더스 등 트럼프의 사람들 만나
한미 동맹·산업협력 속 깊은 대화
불안정한 국내 상황 질문 쏟아져
한국 경제 회복력 일관되게 강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신속 대응할
여·야·정 합의 경제특명대사 시급

속한 민주당이 집권해도 한미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다.”

다보스에 오면서 단단히 각오했다. 야당 출신 도지사지만 ‘세계 경제올림픽’인 다보스 포럼에 ‘대한민국 경제 국가대표’라고 생각했다. 참석한 세션에서, 수많은 정치·경제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영문 명함에는 손으로 ‘Trust in Korea! (한국을 믿어야)’라고 힘주어 써 건넸다. 잘 아는 사이지만, 이 명함을 받은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김 지사의 리더십과 한국 경제를 믿는다”고 답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첫째는 정치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이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조기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내전 수준 증오의 한국 정치 리셋해야

둘째는 경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확장재정, 제대로 된 조세정책, 미래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환기 리더십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미 트럼프 쪽에서는 ‘대형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상대할 얼굴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경제전권특명대사’가 필요하다.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면 더 좋을 것이다.

‘미디어 리더 브리핑’에서는 10여 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 상황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놀랐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를 알고 ‘민주당의

대선 전망’까지 물기도 했다. 두 명의 기자는 내게 대선 출마 의사를 물었다. 내 답은 간명했다. “수레를 말 앞에 둘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先) 내란 단죄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다.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앞세운다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앞에 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보스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정부,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세계다. 수천 명의 정부 고위인사, 영향력 있는 기업인, 국제기구 수장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를 논하는 ‘파워 네트워크의 장’이다. 그중에서도 50명만 초청받는 특별한 포럼이 있다. ‘비공식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이다.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초대됐다.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사회를 맡아 올해 경제를 전망하는 투표를 거수로 한다. 지난해보다 세계 경제가 좋아질지, 비슷할지, 나빠질지를 묻는다. 이번 모임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좋아질 것이라며 손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우리 경제만 이렇게 추락하고 민생은 어려운가.

올해도 다보스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했다.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 기후변화 대응, 사람에 대한 투자, AI를 포함한 기술진보 등의 의제를 토론했다. 갈 길을 찾았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가. 경쟁, 기득권 유지와 확장, 내 편 내 편 가르키기, 가히 내전 수준의 증오 정치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참석 중 야외에서 짧은 동영상 하나 찍었다.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이 요청한 창립 심포지엄 축사였다. 축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대통령 파면만으로 안 됩니다. 정권교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제7 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대계약’이 필요합니다. 1987년 만든 첫 번째 사회대계약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2의 사회대계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담은 민주당부터 겸허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 시민사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만듭시다.”

만 3일 간의 다보스, 포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글로벌 평가단 사장과 의 만남이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격정돼 마지막까지 짊어 내 만났다. 귀국 비행기를 타러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차 안에서 원고를 쓰며, 최근의 사태와 혼란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눈 내리는 다보스를 떠나며 다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15일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현재 보석 석방) 등이 모두 구속됐는데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 대통령이 다른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검찰은 재판 준비와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검찰에선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실행한 주요 군 지휘관이 이미 구속됐고,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

닌 요원(군인)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상식 밖의 증언까지 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기소는 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계속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도 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다. 당시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했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아예 새로 수사를 할 듯이 의욕을 보였지만,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상 근거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사건 초기 윤 대통령 체포에 너무 집중하느라 수사와 증거 확보 등 검찰 기소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경찰·검찰·공수처로 나눈 현재의 수사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도 필요하다.

**계엄 본질 호도하고 수사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큰 책임
검찰, 공소유지에 전력 다해야... 수사 체계 재정비 필요**

여야, 민생 쟁거 달라는 설 민심 경청해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타진 이후 정치권은 유례가 드문 살벌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난도질하는데 당력을 총동원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줄 순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자 설을 맞은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요란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1월 23~24일)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다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2위는 ‘사회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20%)이었는데 1위와 큰 차이가 있었다.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는 연령·지역·직업·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룹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정치권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인 셈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침체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여야의 합심·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기조를 조율할 여야·정 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의식해 사생결단식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 탓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이 선거용이란 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무 진전이 없다.

이제 계엄·탄핵 이슈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정교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 노선과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의 발언이 진심을 인정받으려면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들의 숙원 입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 보수 결집 야상만 의식해 지나치게 우경화한 모습을 보이면 전체 민심과 멀어질 우려가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설 연휴에 귀를 크게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지 바란다. 민심을 받아들여야 미래가 열린다.

윤석열·이재명 ‘제2 내전’ 막으려면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정치적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극과 극으로 갈라선 두 진영은 감정이 격앙돼 상대방을 철천지원수처럼 적대시한다. 그 와중에 골병드는 것은 국력이 훼손된 대한민국이고, 상처받은 국민이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시비로 정치적 갈등이 일제점에 이르렀다.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고, 1·19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6명이 구속됐다. 미겔수 옷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개근하며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시간표는 벌써 조기 대선으로 옮겨갔다. 여론조사기관들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불안감을 키우는 바람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사시저널)가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하면 박빙이라고 한다. 참 역동적이다.

지금 진행 중인 정치적 내전은 뿌리가 깊지만, 가까이는 불과 0.73%포인트 차로 끝난 2022년 대선으로 촉발됐다. 거대 야당은 탄핵 29건 남발 등으로 윤 정부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윤 정부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휘청거렸다. 급기야 계엄 무리수를 동원했다.

그렇다면 좌우 진영에서 각각 윤석열과 이재명을 앞세운 정치적 내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은 과면당하고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승리로 끝날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현재에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할까. 그것도 아니면 윤 대통령은 과면당하고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다크호스에 패해 대권 꿈이 무산될까.

민심 흐름이 요동치니 아직은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성패와 유불리가 판가름난다고 나라가 곧장 정상화하긴 어렵다. 근본적·구조적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과 제2의 이재명이 나와서 진짜 피를 흘리며 싸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와중에 집정관과 원로원의 권력 균형이 무너진 로마 공화정 말기와 닮았다. 독재자가 출현하고 결국 황제가 공화정을 대체했다. 히틀러가 국민의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해 총통으로 등극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병리 현상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국민은 대한민국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일이 많지만, 다음 세 가지라도 함께 외쳐 관철하면 어떨까. 첫째, 국회에 개헌을 촉구하자. ‘87 헌법’은 효력을 다했으니 내각제든, 대통령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구조 개편은 기본이다. 대통령에겐 국회해산권을, 국회엔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을 다시 작동하게 하자.

둘째,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

정치적 유불리 떠나 ‘뇌관’ 제거를 개헌은 필수, 공정 재판 보장하고 선관위 대수술, 전면 수개표해야

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강하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진영 눈치나 보며 재판을 질질 끄는 정치 판사는 법조계에서 퇴출시키자.

셋째, 권한과 위상이 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자. 선진국들처럼 행정부 산하로 이관해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자. 인사 비리나 저지르는 상설 선관위가 꼭 필요한가. 김여중·이재명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제는 황교안·윤석열로 전염됐다. 독일·대만처럼 단순 수개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자. 불신받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는 하루에 끝내자.

정치적 내전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영영 멈춰설 것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지켜보고도 구조적 문제를 방관·방치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주먹이 아니라 입으로 모두가 함께 외치면 여론은 바뀐다. 그래야 세상도,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처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 NHK, 한국 연합뉴스, 4대 방송사, 1부 1,000원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경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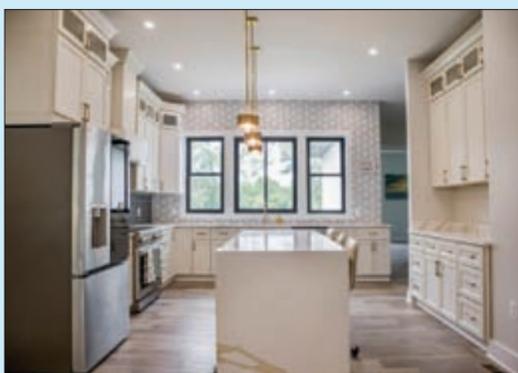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AN. 30th - FEB. 6th, 2025



Organic 
Tofu is Here!

맘맘 유기농 두부 건강 스페셜

Mom Mom Organic Tofu is wholesome goodness, crafted for everyone



2 14 OZ **\$3.00**
FOR 3.00

판입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erling, VA: 30 Piggons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93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5204 Pit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4
- Ashburn, VA: 43930 Fairview Hunt Plaza,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 Eldo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6801 Beltsvill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Wei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e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eithersburg, MD 20878

LA 관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anuary 30,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 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산불 피해, 렌트·주택시장 대형 변수 부상

올해 주택시장 어떤 변수 있나

지난해 주택 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집값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폭이라도 매물이 증가하고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다. 올해 변수로 꼽힌 것은 경제 상황이었다. 여기에 LA 산불이 주택과 비즈니스 1만 채 이상을 삼키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등장했다. 참사가 끝나기도 전에 후유증을 전파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당장 피해자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LA 산불 영향

사상 최악의 산불이 LA를 휩쓸었다. 주택가를 삼킨 산불은 하루가 다르게 피해를 키웠고 후유증은 아직 가능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벌써 LA 지역 렌트비가 적게는 8%, 많게는 12%까지 오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재해 뒤에는 렌트비가 올랐다. 뉴올리언스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몇 년 동안 렌트비가 33% 이상 뛰었다. LA산불 피해를 뉴올리언스의 재해와 비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현재 렌트비 상승률인 1%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엔시노의 4베드 하우스의 렌트비 렌트비는 지난 3월 9000달러였다가 산불 피해가 커진 이후 월 1만1500달러로 뛰었다. 산불을 전후로 약 28% 급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며 올해 LA 집값과 렌트비 전망에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포토]

별써 렌트비 28%나 올린 리스팅 등장 보험료 2배 올리면 집값 7% 하락 추정

스타를 고객으로 둔 한 고급주택 전문 에이전트는 18시간 동안 38건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말리부의 집을 잃은 이들이 많았고 알테디나의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새집을 구매하려는 지역은 뉴포트비치와 오렌지 카운티였다.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심리적 효과다. 대규모 피해 이후 매매를 망설이거나 자연재해 위험이나 보험 등을 더 꼼꼼히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에서 보험 영향력 증대
산불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내린 첫 번째 조처 중 하나가 피해 지역에서 주택 보험 취소 금지였지만 전문가들은

등했다.
또 다른 렌트비 상승 이유는 건설 인력 유입이다. 이번 산불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 건설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하고 이들의 수요가 한동안 렌트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가격인상은 10%로 제한되지만 렌트 시장에 산불 피해자의 유입이 많아지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렌트비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산불 피해가 매물 부족과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지역에 부촌이 많아 영향이 비슷한 지역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톱

이번 산불 피해로 주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도 모델링으로 산정한 위험과 재보험 비용 상승을 반영하리라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100만 달러이고 주택 보험료가 연 5000달러를 가주의 전형적인 주택이라고 볼 때 보험료를 2배로 올리면 주택 가치는 7% 정도 하락한다고 본다.

정부의 보험 취소 금지 조치에도 전례 없는 피해와 보상의 후폭풍으로 보험사들이 철수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역일수록 보험의 집값 결정 비중이 커진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트팜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부 지역에서 철수한 뒤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이 16% 하락했다. 안유혁 객원기자
▶6년 '주택시장'으로 이어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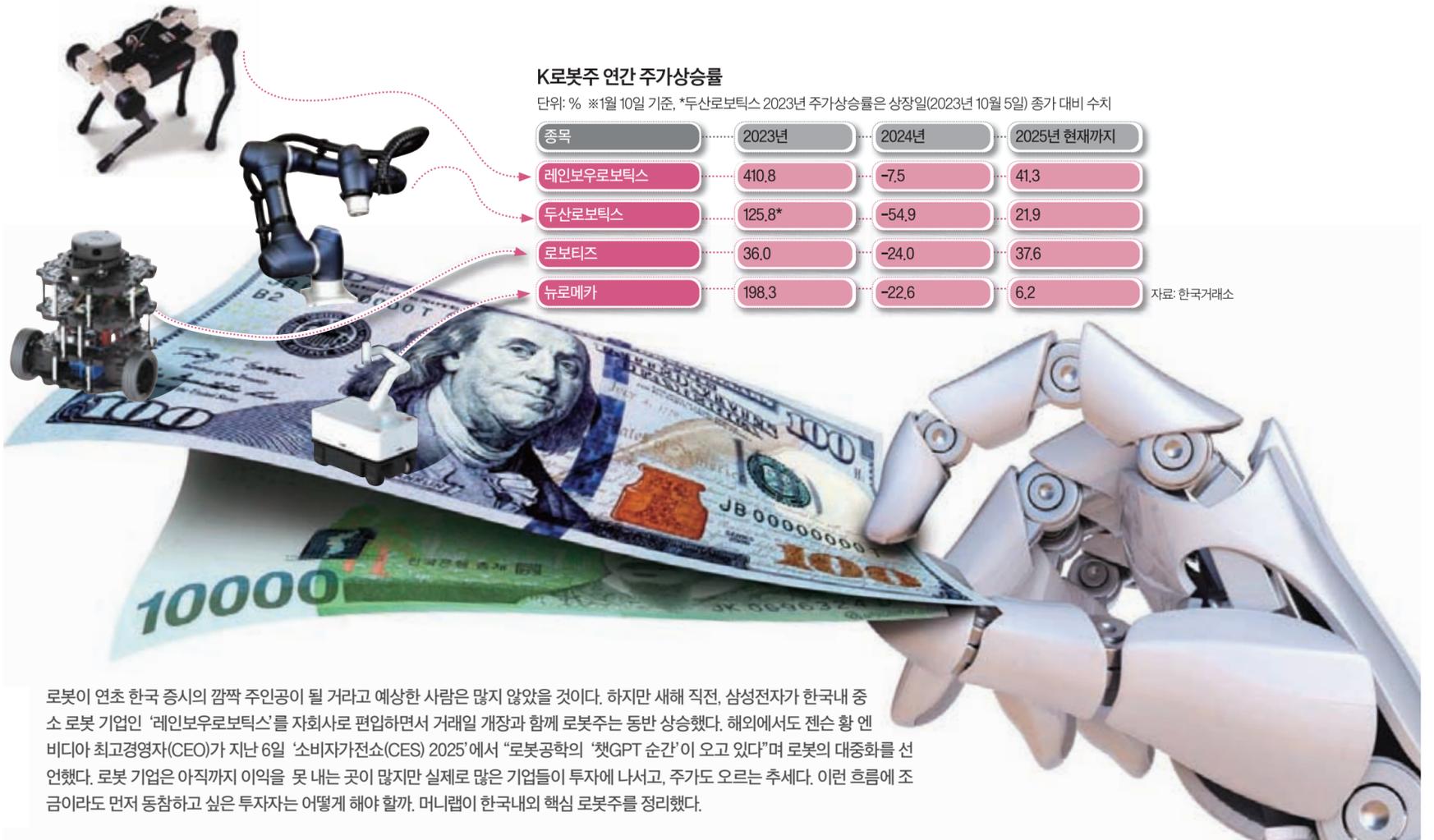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박물관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1 \$630,000 Sykesville 타운홀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홀,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홀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3 \$1,025,000 N. Potomac 싱글홀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4 \$1,325,000 포도팩 싱글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숙성반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각이 중요됩니다.
뉴스타에서 함께 성공하세요!
2월 4일 화요일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로봇'이 뛰어온다... 1월에만 40% 뛰었다



로봇이 연초 한국 증시의 깜짝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새해 직전, 삼성전자가 한국내 중소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거액의 개장과 함께 로봇주는 동반 상승했다. 해외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소비자가전쇼(CES) 2025'에서 "로봇공학의 '챗GPT 순간'이 오고 있다"며 로봇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로봇 기업은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는 곳이 많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주가도 오르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조 금이라도 먼저 동참하고 싶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니랩이 한국내의 핵심 로봇주를 정리했다.

그래픽=김호준

SI로봇 종류별 개체수 예상치

단위: 백만대

2024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50년	연평균 성장률
자율주행차량					
27	34	126	380	1858	17%
가정용 청소로봇					
286	326	541	793	1188	5%
휴머노이드					
0	0	1	13	648	61%
무인운송차량(AGV) 및 자율이동로봇(AMR)					
2	3	9	28	181	18%
드론					
37	40	54	73	149	5%
돌봄로봇					
0	1	6	18	71	20%
산업용 청소로봇					
1	2	6	14	25	11%
식품 배달 로봇					
0	0	4	11	19	19%
음식서빙 로봇					
0	0	3	10	15	17%
합계(중복수치 제거)					
353	406	749	1337	4136	10%

자료: 시티그룹 GPS(Global Perspective & Solutions)

'운동, 조작, 위치 지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도록 프로그래밍된 작동 장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로봇' 정의다. 로봇의 정의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자율(autonomy)'이다. 즉, 이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나 공장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 스스로 더러운 곳을 찾아 청소하는 청소로봇 등도 로봇이다. 이들 기기가 기존 기계와 다른 점은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자율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피지컬 AI'로 옮겨가고 있다.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AI를 뜻한다. 아직 피지컬 AI나 하드웨어의 발전 수준은 초기 단계다. 하지만 로봇의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다. 그는 2040년에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많아지겠느냐는 질문에 "먼 미래지만, 100억 대를 넘어 인간보다도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시티그룹은 2050년까지 AI 로봇 개체 수를 종류별로 예측했는데 자율주행차량은 18억5800만대, 가정용 청소로봇은 11억8800만대, 휴머노이드 로봇

은 6억48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글로벌 '큰손'이 주목하는 로봇 테마주

하지만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이라 당장 투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현재 한국내 증시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 참고할 만한 것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휴머노이드 66' 목록이다. 이 목록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와 몸을 개발하는 '조력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력으로 혜택을 얻는 '수혜자' 기업 66곳이 포함돼 있다.

▶조력자 중에는 미국의 AI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 일본과 중국의 로봇 부품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기업, '네이버랩스'를 통해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 ▶수혜자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이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운송·외식 기업 등이 포함됐다. 신체 노동 비율이 높은 건설과 리테일(소매 유통) 기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가 말하는 로봇 투자 실전편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로봇주는 욕망을 가리기 쉽지 않은 투자처다. 한국내에서 드물게 로봇 분야에 특화된 애널리스트인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한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로봇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K로봇액티브'를 운용하는 정대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을 만나 투자법을 들어봤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양승윤 연구원: 본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사업 의지를 보여줬다. 삼성이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 같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 오준호 교수를 미래로봇추진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로봇 연구개발 조직 재편으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정대호 팀장: 로봇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본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투자는 삼성의 자본력, 해외 네트워크가 로봇 기술력과 만나게 계기다. 피지컬AI 기업 인수 등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추가해가며 역량을 키울 것이다.

-한국내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양승윤: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도 '엑스블(X-ble)'이라는 웨어러블(착용형)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서 활용하는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대차나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은 로봇이 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AI가 중요하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엔비디아, 846조원 날아가 시총 1위→3위 추락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 AI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6.97% 폭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2.47포인트(-3.07%) 급락한 1만9341.83에 거래를 마쳤다.

딥시크 충격에 직격탄을 맞은 엔비디아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118.42달러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16.97% 폭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96포인트(-1.46%) 내린 6012.28에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9.33(0.65%) 오른 4만4713.58에 거래를 마쳤다.

딥시크가 개발한 저비용 AI 모델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AI 관련 과잉투자 우려를 키우면서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불러왔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는 지난 24일보다 시총이 5890억 달러(846조6875억원)나 증발하며 3위로 주저앉았다.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이 17.4% 떨어지며 낙폭이 더욱 컸고, 오라클(-13.8%), 슈퍼마이크로컴퓨터(-1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7%) 등도 두 자릿수대 낙폭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AI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평가를 받아온 애플은 AI 이날 3.2% 상승했다.

기술주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날 강세를 보였다. 기술주 종목에서 빠져나온 투자금이 경기순환주로 이동한 데다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자금을 완전히 빼지 않고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등 방어주로 순환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고무됐다”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정대호: 삼성과 현대차 모두 하드웨어는 뛰어난데, 부족한 것은 AI다. 그쪽을 보강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한다.

-로봇 경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양승훈: 미국·일본·독일이 강하지만 사실상 가장 강한 것은 중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고, 사업장에서 중국 로봇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사용하기 때문이다. 싸고 좋은 로봇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일본이 패권을 꼭 잡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제외하면 거의 중국이 강세다.

-한국 로봇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

정대호: 협동로봇에는 두산로보틱스·레이보우로보틱스·뉴로메카 등이 있고, 물류로봇에는 로보티즈·티로보틱스·유진로봇이 있다. 수술로봇에는 고영·큐레소 등이, 로봇 부품으로는 에스피지·SBB테크 등이 있다. 다만 모두 하드웨어 기업이고 로봇의 두뇌인 소프트웨어AI, 피지컬 AI 쪽에는 사

실상 한국내 기업이 없다고 봐야 한다. 네이버랩스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로봇 상용화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시장 전망은.

정대호: 개별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겠지만 산업 전체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상용화·양산 시기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미 미국 로봇 ‘피규어’가 BMW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업체도 테스트에 들어갔다.

양승훈: 문제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인간처럼 다양한 일을 하는 휴머노이드를 원하는데, 그런 건 아직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즉 두뇌는 계속 좋아지는데 하드웨어가 그걸 못 받쳐주는 상황이다.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이 올 우려가 있다. 애플이 아이폰과 iOS(운영체제)를 함께 만들었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

이 개발하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계의 애플이 될 수 있다.

-로봇 기업에 투자할 때엔 뭘 봐야 할까.

양승훈: 미국에서 핫한 휴머노이드 기업 피규어는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4조원 이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결국은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한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수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는 것이다.

정대호: 스타트업에 투자하듯 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보통 사람·기술·자본을 본다. 우선 어떤 개발진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본 측면에서는 꾸준히 개발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든든한 투자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주주 중에 삼성전자나 LG전자·두산 같은 대기업이 있다면 이 회사는 지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다.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는 점은 명확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남승기 기자

김재경의 마켓 나우

미국산 LNG와 한·일 ‘에너지 허브’ 경쟁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규 수출 허가를 동결했던 전임자의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에너지부가 그동안 승인을 보류한 5건의 LNG 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 정확히 1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역의 국가로 LNG를 수출하는 신규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했다.

미국은 이미 세계 1위 LNG 수출국이다. 2023년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호주·카타르를 앞섰다. 이번 행정명령 같은 우호적인 환경 조성으로 2024년 8300만톤 규모인 미국 LNG 수출 능력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해 그 입지가 강화될 것 같다. 더욱이 최근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발생한 천연가스 과잉 공급도 일부 해소되어,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산 LNG는 호주·카타르산과 달리 계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보통 LNG 수출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요구된다. 이에 채권단은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해 수출 계약에 경제적 조항을 넣도록 강요한다. 대표적으로 LNG의 최종 목적지(항구)를 특정하는 ‘목적지 제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인수자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까지 가서 하역해야 하며, 원유 등 다른 원자재와 달리 중간 기착지에서

중계거래를 할 수 없다. 다행히 미국산 LNG는 대개 이 조항이 없다.

현재 미국산 LNG 수출의 약 70%는 유럽이 목적지다. 유럽행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송용 4개 파이프라인 중 야말과 노드스트림의 운영이 중단된 이후, 유럽은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해왔다. 더욱이 올해 1월 나머지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도 운영이 중단돼,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은 다른 이유로 미국산 LNG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목적지 제한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도입, 최근 천연가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에 재판매로 차익을 남길 속셈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대 LNG 수입 인프라도 보유 중이며, 세계 2위 LNG 수입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가격협상력도 상당하다. 조만간 동아시아의 LNG 거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사실 우리도 ‘LNG 허브’라는 명목으로 울산 북항이나 여수 묘도에 구축 사업을 해왔다. 실상은 주변 발전소 등에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대주는 인수 터미널에 불과하다. 지금 울산 남항 부지에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 구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사례를 참조해 미국산 LNG 기반 거래 허브 구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경의 돈의 세계

트럼프 취임과 자동차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의 선망이 되고, 이용당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시작이다. 누가 누구를 이용당한 말인가. 그가 말한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를 폐지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자는 구호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판매는 역대 최대로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의

50%(미국향 수출액의 26.8%)를 차지했다. 전체 대미 수출의 60%라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엔 감세를, 다른 나라엔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결기 가득 찼다. 대외수입청이 징수할 엄청난 관세 수입이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이루게 한다는 말은 소름 끼치게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운명은 어찌 될까.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되고 이차전지와 친환경 분야에 혜택을 준 첨단 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사라질

것인가.

이달 초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고 좋아한 현대차 3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아 EV6와 EV9 두 개 차종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남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목을 매는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투자금의 40%를 환급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제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의 투자 확대를 현대차 그룹만 직·간접적으로 57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 불법 이민 문제로 멕시코에 부과하려는

25% 자동차 관세에서 기아 자동차 현지 법인은 무관하다는 것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 싸울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미국 정책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슬프게도 산업 공동화 문제 해결을 덩그러니 떠안고서 말이다.

UNIST 교수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74 Hampton Hill Ct, McLean, VA	2월6일 이전에 내물 예정, 역골대역에 가장 인기있고, 유망하게 운영되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퍼를 넣었다는 사람이 있으나, 필사적으로 하객에 응대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물려 집 Renovation 완료	1.25M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다주택 내 놓은 날 좋은 오피 빌라 바로 계약. 오피하우스 위주. 열라 So Happy	1.2M
Fairfax, VA	위에 열라 4-1 지는 빌라 소개. 4명의 평평한 물고 특색. 마지는 오피 자신있음	850K
10** Salt Meadows, McLean, VA	한국에서 통할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팅완료 완료	2.8M
McLean, VA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에 달라고 한 빌라 10-1 지는 빌라. 좋은 집이 나와 소개할수 바로 구입. 비로 3년 전도 안로. 1/3/2025 세팅완료	900K
McLean, VA	계약 후 10일 이내 세팅완료 완료. 현재 3년 전비(4.25%) 렌트하고 싶 투자자. 해당 25일경 기간에서 다음 달 전비비율 주안 통할상으로 바로 입금함	900K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McLean, VA	3년	집 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유망한 바로. 비로. 구입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고 원. 렌트 후자용 장치고 유망한 장기에 원. 유망한 후자용 장치고 유망한 장기에 원. 유망한 후자용 장치고 유망한 장기에 원.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McLean, VA	3년	주재원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안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공급난·전세난에 금리 인하 신호 “서울 상고하고, 수도권 상저하고”

(상반기 상승 하반기 상승)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홀로 버티던 서울 집값이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대로 무너질까. 전문가 전망도 엇갈린다. 정치 불확실성·대출 규제·금리 인하·공급 감소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올해 주택시장을 엄습한 주요 변수와 그 영향을 짚어본다.

전문가들,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무개

전국 입주 물량 작년보다 25% 급감 “2025년 공급 부족 넘어가는 첫해”

“지난해 가을, 대출 규제 이후로는 거래가 뜰 났어요. 시세보다 2000만~4000만원 낮은 급매물도 나오고 있어요. 예년 같으면 연초에 분양책도 나왔는데, 지금은 시국이 뒤숭숭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탄핵 정국 속 확실히 안전자산(강남권 아파트)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요. 지난 주말에는 매수 문의도 늘고, 집을 보고 간 팀도 많았어요. 매물 보유도 늘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집값 바로미터’ 잠실 매수세 활발

새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수집 넷째 자리까지 넓혀보면, 1월 둘째 주에 0.0043%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넷째 주(23일 기준)부터 10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4%→-0.05%) 대비 낙폭을 키웠다.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 잠시 상승이 멈춘 것일까. 최근 전국적인 집값 하락에도 홀로 버티던 서울마저 흔들리면서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서울 25개구를 개별로 놓고 보면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혼재되었다. 용산,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은 상승했지만 노원, 중랑, 구로 등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선 ‘추세적인 하락’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은 상고하고, 수도권(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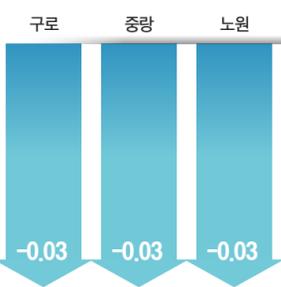
인천)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는 ‘상저하저’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팀장은 “탄핵 정국이 진정되고 부양 정책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무게를 두는 주요 근거는 ▶공급 부족 ▶전세난 ▶금리 인하 등에 있다. 지난해 전국 입주 물량은 36만2132가구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약 25.38%(9만1921가구) 줄어든 27만211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이후 공급 절벽이 예고되었다. 올해는 3만7855가구로 지난해(2만7956가구)보다 늘어나지만 2026년 8526가구, 2027년 9573가구로 급감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가핀은 블로그 ‘아기핀의 부동산 산책’에서 “2025년은 공급 부족으로 넘어가는 첫해”라며 “올해 착공 물량이 극적으로 늘어난다면 2028년쯤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28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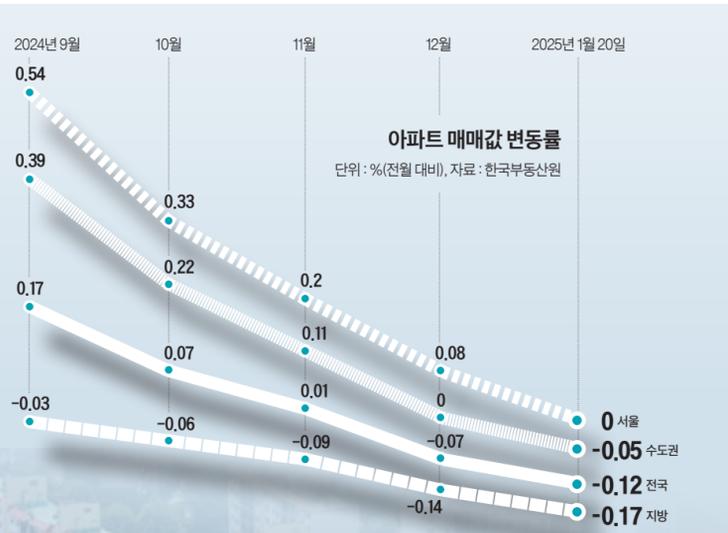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하락(-0.01%)에서 보합(0%)으로 돌아섰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올림픽파크포레온(3만4757가구)의 입주 여파에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양

서울 주요 지역 변동률

단위: %, 20일 기준(전주 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이라 주목받는다. 김재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매머드급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2024년 11월~2025년 3월)에도 전세 시장이 잠시 주춤한 상태에 그쳤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시그널”이라며 “올해 서울 공급 물량이 증



서울 아파트 입주 및 예정 물량

단위: 가구(*예정), 자료: 부동산R114

2018년	3만7700
2019	4만9128
2020	5만1513
2021	3만4504
2022	2만7919
2023	3만6161
2024	2만7956
2025*	3만7855
2026*	8526

2025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최근 5년 평균	2025년	가격 영향
경제 성장률	2.36%	1.6~2.1%	하락 요인
30세 도달 인구	67만 1000명	73만 5000명	상승 요인
가구 증가	43만 7000가구	37만 1000명	상승 요인
준공 주택	52만 3000가구	33만 2000가구	상승 요인
분양 주택	31만 9000가구	25만7가구	상승 요인
대출 금리	2.97%	3.5% 내외	상승 요인
대출 규제 (용이성)	681조원	일부 완화 전망	하락 요인

가한 상태에서도 전세 시장이 선방하면 2026년 이후에는 전세금 폭등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도 목전이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며 2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가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과 맞물리면 본격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시장이 얼어있을 때가 집을 사기 유리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집값 조정 가능성

에 대해 “집값이 하락하려면 급매가 다수 나와야 한다”며 “이러려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데도 급매가 1~2건도 찾기 어렵다면,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나 지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미 회복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표적 예가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활발한 매수세다. 잠실은 서울 집값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하고 주변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래 통계로 잡히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현장은 거래 열기가 이미 뜨겁다

는 전연이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리틀백은 “1월 중순에만 엘스(전용 84㎡·28억5000만원) 등 신고가 소식과 리센츠(전용 84㎡·28억원) 거래가 나오면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실 지역은 지난해 11·12월에 바닥을 찍고 현재는 급매는 실종된 상태”라며 “마포·광진 등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며 중·상급지 중심으로 거래가 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배현정 기자

▶ 6면 ‘부동산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한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주택 매매 / SALE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임대

비엔나 겔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임대 주택, 상업용 건물 관리 해드립니다.

세입자와 분쟁처리 / HOA 와 문제 처리

페어팩스 시티 + DC + MD 카운티 임대 면허증 + 인스펙션 통과해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제니스 박
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주택 시장 전망

매물 부족·거래량 감소 올해도 이어져
모기지 하락·주택판매 증가로 반등 예상

2024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을 겪었다. 주택 가격 상승, 매물 부족, 거래량 감소 등 여러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지역별로도 상이한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주택 시장에 대한 주요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다.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

2024년 9월 기준, 캘리포니아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86만815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였다. 이는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로,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과 거래량 감소

매물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2024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주택은 총 27만7490채로,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하였다. 이는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 재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가격 변동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칼스배드의 경우, 인구가 줄었음

에도 주택 가격이 25% 상승하였다.

▶중산층의 주택 구매 어려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상승이 텍사스 등 다른 주로 확산하면서,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주택 수요 증가와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교외 지역의 성장

집값이 50만 달러 이하인 캘리포니아 교외 지역 중 일부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아델란토시는 주택 가격이 39만7484달러다. 인구는 2년 전보다 10.97%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미부동산협회(NAR)는 2025년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 모기지 금리의 하락과 주택 판매 증가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간 주택 가격은 41만700달러로 2024년 대비 2%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주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렉스 유
CBRE Korean
Desk 대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2)

오피스 시장 회복 사이클 본격화
리테일 부문 공실률 가장 낮을 것

2025년은 국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 예상됩니다. CBRE의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소비자 지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금융 여건 완화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동력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펀더멘털 강화가 맞물려 부동산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비록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화율(캡 레이트)은 소폭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랜 만에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 시장은 2024년에 시작된 회복 사이클이 2025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프라이م 오피스 공간의 부족 현상이 연말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에서는 오피스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피스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2025년에는 대형 기업들이 오피스 공간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큼니다.

리테일 부문은 2025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부문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테일러들은 매장 통합 및 구조조정을 지속

하겠지만, 교외 지역과 선벨트(Sun Belt) 도시에서는 신규 매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교외 쇼핑몰 및 오픈에어몰(Open-air Mall)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 및 물류 부문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 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후된 산업 물류 시설의 공실률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최첨단 물류센터로의 이동(Flight to Quality)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멀티패밀리(아파트) 시장은 지난 2년간 신축 물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공실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신규 가구 형성이 활발해지고, 높은 주택 구입 비용이 임대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경제 확장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면 '주택시장'에서 이어집니다

지난해의 사례는 이번 산발 이후 보험회사들의 보험 취소나 보험 갱신 포기, 철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준다.

▶경제 상황의 변화

올해 들어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경제 지표는 여러 면에서 전문가 예상치와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10일 나온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6000명이 증가했다. 전망치 15만5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실업률은 4.1%로 예상치 4.2%보다 낮았다. 고용이 예상보다 튼튼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모기지 금리 하락 전망도 약해졌다. 주택 매매에는 좋지 않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일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크게 뛰었다.

지난달엔 2.8%였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모기지 금리는 2023년 10월 8%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프레디맥 데이터가 집계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고정금리 평균 금리가 4.09%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6%대 후반에 머물던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 말 6.85%까지 올라갔다가 새해 들어 약간 낮아져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리얼터닷컴은 올해 평균 모기지 금리가 6.3%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연말엔 6.2%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택 매매가 1.5% 증가하리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나온 지난달 경제 수치는 모기지 금리의 하향 안정세 전망과 이로 인한 매매 증가 전망을 관망세로 돌려놓았다.

▶4면 '부동산 전망'에서 이어집니다

양극화 심화, 지방은 '상저하저' 우려
반면, 경기 침체와 고환율 등 경제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원·달러 환율 상승)을 넘어섰을 때 한국 경제에는 위기가 왔고, 부동산 시장도 급락했다"고 말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환율은 모두 1400원을 돌파했다. 고환율의 장기화는 내수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까지 하향 조정했다. 계급 전망 해도 1.9%였다.

한 교수는 "정치·경제적 실업환풍을 견고한 상황에서 주택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히려 위험한 지표라는

분석도 나왔다. 완만한 금리 하락은 부동산과 주식 등 대부분 자산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전주곡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빅컷으로 금리 인하의 포문을 열었던 2001·2007년의 경우 빅컷 이후 수개월 뒤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강남 집값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핵심입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두텁지만, 위기 시 이들 지역의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라는 복병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로 대출 문턱을 높인 정부는 오는 7월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 예정이다. 높은 대출 문턱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의 힘을 희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투책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UNDER CONTRACT Marriottsville \$665,000 타운홈, 방3, 화4	SOLD Laurel \$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	SOLD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SOLD Odenton \$465,000 타운홈, 방3, 화3	SOLD in 3 Days Perry Hall \$419,000 싱글홈, 방3, 화2
SOLD Catonsville \$395,000 싱글홈, 방4, 화2	SOLD Elkridge \$515,000 타운홈, 방3, 화3	SOLD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SOLD Jessup \$389,000 타운홈, 방2, 화2	UNDER CONTRACT Hanover \$550,000 타운홈, 방3, 화3.5

RENT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COMING SOON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COMING SOON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FEEL AT HOME WITH THE TASTE OF KOREA



Hotteok



Winter Promotion!
Experience K-Food with H Mart.

JAN. 31st - FEB. 13th, 2025

Available at : [VA] Fairfax, Centreville, Burke & [MD] Ellicott City Stores.



RAW NATURE
Cooked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현미밥
7.4 OZ X 12 BOWLS/BOX

WHITE RICE **\$10.99** BROWN RICE **\$11.99**



Tteokguk



HAIO Red Pepper Paste
[Go-Chu-Jang]
해오름 태양초 쌀고추장
MILD HOT/2.2 LB

\$4.99

HAIO
Korean
BBQ Sauce
해오름
불고기/
갈비양념
SELECTED VARIETIES
1.85 LB

\$3.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0.99 14.8 OZ X 3 EA/PKG



LA Galbi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5.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8.99



HAIO
Tea with
Honey
해오름
액상차
SELECTED
VARIETIES
2.2 LB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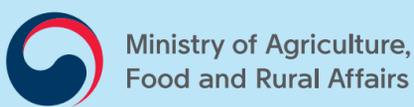
SANGRIME
Tea
산그리메
옥수수 수염차
ALL VARIETIES
0.53-1.05 OZ

\$3.49



HAIO
Korean Style
Noodles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연기는 남 인생 도둑질, 69년간 배웠지”

“하나도 대단할 거 없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아흔 목전이라곤 믿기지 않는 힘 있는 목소리였다. 연기 인생 69년 차, 국내 최고령 현역 여배우 김영옥(87)을 지난 22일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한 날이었다. 평소엔 잘 안 쓴다는 마스크를 벗자, 세월에 농익은 미소가 드러났다. 지혜와 신중함, 도약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푸른 뱀의 해(乙巳年), 건강한 활동 비결부터 물었다.

“50대 때부터 되도록 하루 6~8시간은 자고 편식 안 하고 무리 안 하려 그러죠. 하지만, 우리 일이 밤새고 불규칙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명이 긴가 봐요.”

그의 ‘최고령 현역’ 직함은 그저 나이 때문이 아니다. 솔직한 태도로 동시대와 소통해온 젊은 감각이 토대다.

‘오징어 게임’(2021, 넷플릭스), ‘파친코’(2022~2024, 애플TV+) 등 글로벌 OTT 히트작을 비롯한 200여 편의 드라마·영화 출연작, 삶의 이야기를 노랫말에 실어낸 JTBC ‘뜨거운 씬어즈’(2022), ‘힙합의 민족’(2016) 등 음악 예능, EBS 다큐멘터리 ‘건축탐구 집’ 내레이션(2020년 한국방송대상 내레이션 상 수상)까지…

일도, 생각도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쫓아왔다.

지난달 수상의 겹경사도 그런 행보의 결실이다. 영화 ‘소풍’(2024)으로 공동 주연 나문희와 나란히 서울국제영화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SBS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에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로 공로상을 받았다. 배우 박인환과 연상연하 부부로

코믹 호흡을 발휘한 주말드라마 ‘다미 패밀리’(KBS2)는 부동의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는 1938년 경기도 경성부(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8·15 해방을 맞았다. 6·25 전쟁 땀 연세대에 다니던 큰오빠가 인민군에 강제징집 됐고, 작은오빠는 국군으로 참전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가 흡사 그의 가족사였다. “어릴 때 살던 종로 사직동에 돌아와 사는데, 폭탄 파편 맞지 말라고 어머니가 솜 모자를 씌워준 기억이 여태 생생하죠.”

혼란한 시절마다 돌파구를 찾아내 온 그의 삶이다. 연기 대본이 그에겐 ‘학습지’였다. “연기하며 남의 인생을 도둑질해보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대처법을 배우죠.”

고교 시절 연극반을 하다가 1957년 연극 ‘원숭이손’ 무대로 데뷔했다. 대학을 다니며 한국 최초 TV 방송국 HLZK-TV 텔런트, 춘천방송국 아나운서를 거



여우주연상 받은 87세 김영옥 연극에 아나운서·성우까지 경험 30대부터 노인역 ‘할미넴’ 별명도 “일 들어오면 욕심나 지금도 설레 삶이 다 좋지만 한가, 훌훌 털어야지”

중앙일보에서 만난 배우 김영옥은 “저는 그냥 할머니다. 가장 평범한 할머니상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쳤지만, 기어코 연극판에 돌아갔다. 당대 최고 극작가 차범석의 극단 ‘산하’에 28년간 몸담았다. 그 때 배운 연기의 기본기로 성우(CBS 5기, MBC 1기)를 거쳐 다시 배우가 됐다.

“돈 한 푼 안 받고 1년에 한두 편 훈련과정으로 연극을 했어요. 연극 하나 오밤중에 들어가고, 아이들 흥역을 앓을 때도 못 들여다보고. 근데 일이 들어오면 욕심이나, 지금도 설레요.”

그는 30대 때 일찍부터 노역을 시작해, KBS ‘옛날의 금잔디’(1991)에선 한국 드라마 최초로 치매 연기를 했다. 할머니 전문 배우의 영역을 확장한 게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2004~2005, KBS2)부터다. 무례한 식당 주인에게 속사포 응징을 퍼붓는 장면이 ‘할미넴’(할머니+미국 래퍼 에미넴)이란 별명이 생겼다. 젊은 팬과 소통하는 재미도 맞았다. 음악예능 ‘뜨거운 씬어즈’에서 그가 부른 커버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유튜브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다.

2년 전 그는 사위 중 미끄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뼈에 금이 가 한 살 많은 남편이 소변까지 받아냈다. “이대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게 고쳐지고, 회생할 때 희열이 남달랐다”고 했다. “삶이 다 좋지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요.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겪는 거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걸 내가 잘해요.”

그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 가왕 2’(MBN)에서 얼마 전 작곡가 윤명선이 한 참가자에 했던 칭찬을 언급했다. “삶의 경험이 (가창력에) 영양제가 됐다고, 하늘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했어요. 타고난 재능도 중하지만, 경험이 밑바탕이 되면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해온 장수 명배우의 진짜 비법이었다. 나원정기자

‘테니스 세계 1위’ 시너 실력 과시

결승서 츠베레프 제압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안니코 시너(24·이탈리아)가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2연패를 달성했다.

시너는 26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

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알렉산더 츠베레프(28·독일)를 세트스코어 3-0(6-3, 7-6(7-4), 6-3)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섰다.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우승자인 시너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메이저 3승을 기록했다.

3-0이라는 경기 결과와 달리, 경기 내용은 접전이었다. 1세트부터 두 선수의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나갔다.

시너는 게임스코어 4-3에서 네 번의 듀스 끝에 츠베레프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5-3으로 앞서 나갔고, 결국 1세트를 6-3으로 따냈다. 2세트도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이였다. 타이브레이크 4-4에서 시너의 샷이 네트 위쪽에 맞은 뒤 츠베레

프 코트 쪽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행운을 잡았다. 5-4로 앞선 시너는 결국 7-4를 만들어 2세트까지 가져갔다. 시너는 3세트 게임 스코어 3-2에서 츠베레프 서브 게임을 뺏은 끝에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완성했다.

시너는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도 우승하며 메이저 대회 14연승을 이어갔

다. 지난해 10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시작한 연승행진도 21연승으로 늘렸다.

영국 BBC에서 해설하는 1987년 Wimbledon 우승자 팻 캐시(호주)는 “작년 하드코र्ट에서 1패만 당했을 정도로 하드 코र्ट에서 시너는 난공불락”이라며 “움직임이 빠른 데다 샷에 힘도 실려 있어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피주영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2025년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광고·편집 디자이너: 0명

- *일러스트,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 *높은 조건의 연봉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kdclass2018@gmail.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a chance: 모험하다

(Chris and Tina are leaving work and walking to their cars...)

(크리스와 티나가 직장을 나와 차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Chris: Keep this under your hat. I'm quitting work in two weeks.

크리스: 이거 비밀로 해줘. 나 2주 정도 있으면 회사 그만둬.

Tina: What? Do you have another job?

티나: 뭐? 다른 직장 구한 거야?

Chris: No. I'm taking a chance on starting my own business.

크리스: 아니, 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Tina: What kind of business?

티나: 무슨 사업인데?

Chris: Computer programming and consulting.

크리스: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컨설팅.

Tina: Starting your own business is a big deal.

티나: 자기 사업 시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Chris: I know. I'm in the thick of it.

크리스: 알아. 한창 준비하고 있어.

Tina: Are you nervous?

티나: 불안해?

Chris: A little but I believe in myself.

크리스: 조금 그렇지만 나 자신을 믿어.

Tina: That's important. Well, good luck my friend.

티나: 그게 중요하지. 그래, 잘 되길 빌게.

기억할만한 표현

▶ keep this (or it) under your hat: 비밀로 해줘.

"We're having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the

boss. Keep it under your hat."

(우리는 상사를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 a big deal: 큰 일. 중요한 일.

"Voting for a president is a big deal."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중요한 일입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음.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 (4)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이 있음 (7)출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갓에 찜찜 같은 것이 돋조 (8)값을 깎는 일. 정가가 만 원인데 오전 원에 팔라니 ~가 너무 심하지 않소? (9)입쌀이나 찰쌀에 물을 많이 넣고 푹 끓여 체에 밭친 음식 (11)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행을 베푼. 이 짙은 주지 스님의 법력이 널리 알려져 시주의 ~가 끊이지 않는다 (12)넓고 커서 끝이 없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 특히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14)슬픈 기별이나 소식. 부상을 당해 병원에 누워 있다는 ~가 날아들었다 (15)누이의 아들 (17)손가락을 꼬으면서 하는 셈. 정확하지 않고 대충 어림잡아 하는 계산 (20)학생이 학교에 감 (21)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이름 (23)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눈 (25)튼튼하게 만든 등산용 밧줄(목일어) (26)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 일함. □□□□ (27)말형의 지위는 어버이와 같음. □형□□

세로열쇠

(1)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일을 이룸. □□□□ (2)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3)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영게 얼어붙은 서릿발 (4)행동이나 말 따위가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 □□□□ (5)첫째가는 좋은 맛 (6)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천천히 거닐. 생각이 복잡할 때는 나처럼 너도 ~해 봐. □□□□ (10)배짱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뚝대도 아니 달고 ~도 없이/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윤극영) (13)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뗏다 잠겼다 하는 짓 (14)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출입구 (15)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 존재의 무상(無常)을 이르는 말이죠. □□□□ (16)멀리 떨어진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함. 원□□□ (18)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19)아름 마리스(우) 가운데 한 개의 털.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 (22)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유수한 세계의 ~들이 참석한 회의 (24)말의 등에 얹는 도구. 자전거에도 있지요 (25)아들의 아내. 며느리

스도쿠

	1		7					
			1		4			5
5	2				6			
		2	4	1		7		8
		8	6	7		2		3
								6
8	6			2		1		
		5			3	8		2
		4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8	5	1	9	8	4	6	2
2	9	8	3	4	6	5	7	1
4	6	1	7	2	5	3	9	8
9	6	6	8	3	2	1	5	7
3	1	2	5	7	9	8	4	6
8	5	7	6	1	4	2	3	9
1	7	4	9	8	3	6	2	5
5	2	9	4	6	1	7	8	3
6	8	3	2	5	7	9	1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www.eblu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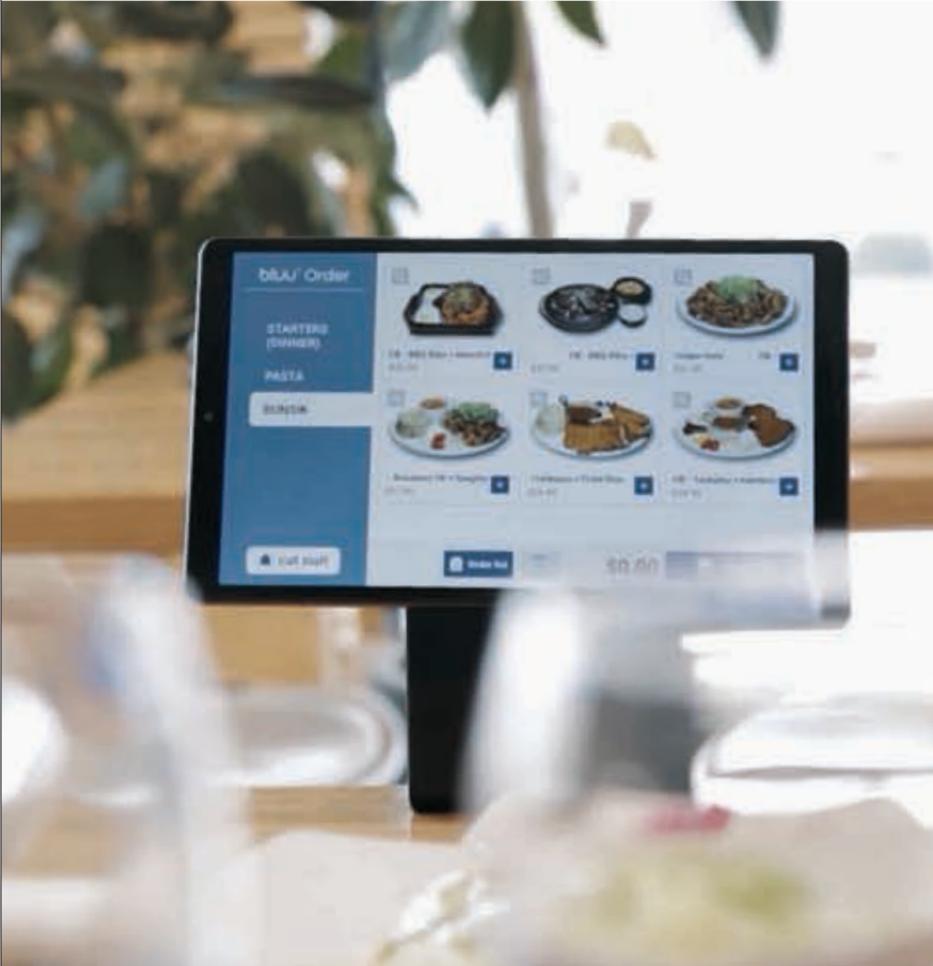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총 \$1,500 상당의
10" 태블릿 5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bluu™ Tab Order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토랑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드 주문 서비스의 혁신



편리함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실수 감소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함으로써 잘못된
주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식사 시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

편안한 환경에서 주문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8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CSM@ebluu.com

1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 보조, RN 간호사, 리셉셔니스트, 엑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트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룬델밀 사평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 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테크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홀 이층 욕실 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하나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워튼 도서관 아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홀 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모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 탁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홀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홀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홀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홀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홀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홀,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 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체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를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렌)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 (9-5pm) 856-304-1907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택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모집 \$15-17/h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 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력자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 개간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T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중앙일보

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센터빌, 챌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챌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t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
경험자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 489 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 774 7443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험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토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시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룩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역
240-644-4190

▶▶로튼세탁소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딕!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헬
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기타/구인/청소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980-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력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 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렌트 방2 화1
부엌 화장실 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에난데일 K마트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넉넉
703 965 234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첸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 344 62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 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8.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한.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 마트 근처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레츠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스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유포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동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 237 3411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콘도 -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1/화1/큰 오피스 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q.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펄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찬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 631 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펄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하도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차없으신분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으로 가구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팝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자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자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 814 8773

▶▶우표수집한것팝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벌런, 청진 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 &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니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청점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클 파워 스팀 청소,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싱.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함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아침죽&양식국
달리버리겸 주방헬퍼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대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른 부위 30초만 되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약"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 아냐"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허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었는데 두 달 여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휘노 고메즈(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 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휘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려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 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팡이 에 의지해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된 그에게 한 한인인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휘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인완사와 함께 손발 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 이다. 중풍은 병원에서조차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항,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몸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아늘했던 발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디마디를 뚫어줘야 한다.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께나 이상근(영양이)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육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보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줄이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반신 또는 한쪽 손가락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 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거나, 종종 손 발의 저림을 느낀다면 보다 철저한 건 강관리를 통해 중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암침법과 6단계 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중풍 치료를 제공하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은 LA 한인타운 호바트 길 에 위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문의: (213)385-3304
▶ 주소: 809S, Hobart Blvd, Los Angeles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뻐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The JoongAng
Los Angeles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썬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0/10LBS•1BOX \$100/10LBS•1BOX
\$14/lb 대추 \$11/lb 대추 \$7/lb 대추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특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Loft, 방2, 화장실2, 완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 450,000



Contract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 710,000



Contract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483,000



Sold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265,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